朝鮮日報
夕刊
四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方應謨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每月一日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옴 히벨고 쭝피 증렬기 春山堂

軍需工業動員에關한 國家總動員法施行

現行軍需工業動員法은廢止

審議會官制도公布

(五日부터)

【東京電話同盟】五日부터 施行되는 國家總動員關係勅令은 四日官報로써如左히公布되엿다

一、國家總動員法施行期日의件(五月五日)
一、國家總動員法을 朝鮮、臺灣、樺太에施行할件(同)
一、南洋群島에서의 國家總動員에關한件(五月五日부터施行)
一、工場事業場管理令(同)
一、國家總動員審議會官制(同)

【東京電話同盟】去四月一日公布된國家總動員法은 벌서부터 政府에서 施行準備를急히하고잇든바 드듸여 五日부터 第十二條의 一部가 施行키로되엿다 그리고 本法은 그附則에 軍需工業動員法及昭和十二年法律第八十八號(支那事變適用에關한法律)는 이를廢止한다고明記하여잇슴을따라 現行軍需工業動員法은 이에 該當하므로 前記國家總動員法第十三條一部施行勅令公布와 同時에 即時廢止되는데 따라서 今後總動員法이 施行된대도 實際에는 全項五十條가 全部發動되는것이아니고 軍需工業動員法에 關連되는 第十二條의 一部가 發動을보게될뿐으로 總動員法의 定義를내린 第一條總動員物資及總動員業務를 規定한 第二條第三條는 且置하고 第四條乃至第二十條의 戰時規定條項은勿論 第二十一條乃至第二十六及第三十一條의 平時規定이라도 施行과 同時에 即時發動되는것이아니고 第五十條에規定한 本法施行에關한 重要事項(軍機에關係인것은除外)에 對하야 政府의 諮問에 應키爲하야 國家總動員審議會를設置함에따라 右總動員審議會에서 此等平時規定의 各條項發動에 關連된 事項이 勅令으로 決定된경우에 비로소 發動을보게되는것으로 當分間平時規定의 各條項은 施行되재로 發動은보지안케된다

【東京電話同盟】國家總動員審議會官制는 마츰내 五日부터 施行키로되엿는바 同審議會總裁及副總裁는 同官制第二條에依하야 總裁에는 近衛首相 副總裁에는 瀧企畫院總裁가 當하며 委員은 五十名以內 關係各廳高等官及貴衆兩院議員學識經驗者中으로부터 內閣總理大臣의 奏請에依하야 內閣에서 任命하기로되엿는데 貴衆兩院議員數에對하야는 近衛首相이 去第七十三議會에서 言明한 貴衆兩院議員은 委員의 過半數를占하게한다는 口約에 基하야 衆議院十五名貴族院 十五名으로하고 이에 內閣書記官長、法制局長官 企畫院次長以下關係各省次官等十五名 學識經驗者五名으로써 組織키로 方針을決定 近近人選에 着手하기로되엿다 이에 貴衆兩院側委員推薦은 貴族院은研究會、火曜會、公正會其他衆議院은 政民兩黨其他各派幹部에게 一任할모양이다

總動員審議會官制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來五日부터 國家總動員法의 一部를施行키로된바 이에作하야 同法第五十條의 規定에依하야 國家總動員審議會를 設置하기로되엿다 右官制는 三日의閣議에서 左와如히決定 五日附官報로써 公布 即日施行키로되엿다

▲國家總動員審議會官制

第一條 國家總動員審議會는 內閣總理大臣의 監督에屬하며關係各大臣의 諮問에應하야 國家總動員法第五十條第一項의事項을 調査審議함 國家總動員審議會는 前項의事項에對하야 關係各大臣에게 建議함을得함

第二條 國家總動員審議會는總裁一名 副總裁一名及委員五十人以內로써이를組織함 特別한事項을 調査審議키爲하야 必要한時는 臨時委員을置함을得함

第三條 總裁는 內閣總理大臣으로써 이에當케함 副總裁는企畫院總裁로써 이에當케함 委員及臨時委員은 內閣總理大臣의奏請에依하야 關係各廳高等官、貴族院議員、衆議院議員及學識經驗잇는者中으로부터 이를命함

第四條 總裁는會務를總理함 副總裁는總裁를補佐하고 總裁事故잇슬時는 其職務를代理함

第五條 國家總動員審議會에幹事長及幹事를置하고幹事長은企畫院次長으로써이에當케하고幹事는 內閣總理大臣의奏請에依하야 內閣에서 이를命함 幹事長은 總裁의指揮를바더 庶務를整理함 幹事는 上司의 指揮를바더 庶務를 處理함

第六條 國家總動員審議會에 書記를置하고 內閣에서 이를命함 書記는 上司의指揮를바더 庶務에從事함

附則 本令은 五月五日부터이를 施行함

皇后陛下臨御 御養蠶開始의御儀

【東京電話同盟】蠶業御奬勵의思召하옵신 御趣旨에서 皇后陛下께옵서 御飼育하옵시는 紅葉山御養蠶所에서는 四日午前十一時、皇后陛下臨御下에 御養蠶開始의 御儀를 行하옵섯다 皇后宮大夫 竹屋女官長以下를 거느리옵시고 出御하옵신 陛下께옵서는 女官과 有泉主事以下를 御相對로 御親히 御掃立御給桑等을 하옵시어 御氣嫌麗하옵시게 入御하옵시엇다

佛國의長期國防策 陸海空軍大擴張

四十七億法公債案可決

【巴里三日發同盟】佛國政府는二日午後의 國務會議에서 總額四十七億一千二百五十萬法에 達하는 彪大한 國防公債發行에 關한 緊急令을 審議可決한바 三日發表하엿다 同公債發行으로國防에 關하야 政府는 長期政策을 採用키로 決定한바 右公債에 依하면 國防費의 使途內容은 大體左와如하다

一、陸軍 六億五千萬法
一、海軍 十億四千百萬法
一、空軍 廿一億六千八百萬法
一、其他兵器費 乃至一九四二年의 五年間에 總額五十億法의 豫算을要求할 權限이賦與되엿다

▲新艦建造

海軍省은 右費用으로써 一九三九年末까지에 左의諸艦種起工에着手할수잇다

主力艦 二隻 巡洋艦 一隻
潛水艦 七隻 油槽船 五隻
小艦艇 合計 二萬四千噸

以上諸艦艇은 一九四二年末까지에 就役케하기로하고 海軍省은 一九三八年

▲兵員增加

다시緊急令은 最近의國際情勢에 鑑하야 海空軍의 兵數增強其他 左의諸點을 規定하엿다

一、海軍兵數增加 一九三七年十二月二十一日決定한海軍兵員六萬九千五百人을 七萬二千五百人으로함
一、空軍兵員의增加 一九三七年末에決定한 空軍兵員 四萬六千五百五十名을 五萬二千五百名으로함
一、세네갈土人兵二個大隊新設
一、印度支那 소말리랜드及 佛領西阿弗利加의 各師團軍增強
一、近代機械化作戰自動車燃料貯藏
一、軍需品工場 特히 兵器製造及火藥工場의 技術員養成

히、무兩巨頭會見

軍事同盟締結前提?

히總統一行羅馬에到着

【羅馬三日發同盟】伊太利訪問의 히틀러總統一行은 特別列車로三日午後八時半羅馬南部오스첸세停車場에 到着못솔리니首相等의出迎을바더 熱狂的歡迎裡에 宿舍 퀴리나레宮에入하엿다

【羅馬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마츰내三日午後羅馬에 到着못솔리니首相과 昨秋以來의 會見을遂하엿다 昨秋못솔리니首相이 伯林訪問後히틀러總統은 本年二月獨逸全軍最高指揮官이 되엿고또한못솔리니首相도 去二月伊太利全軍의 最高指揮官及最高元帥에 推戴되어 同樣兩國軍隊는 形式的으로나 實質的으로나 兩獨裁者의掌中에 歸하게되엿스므로今回의會見에서 軍事同盟으로나아가는 最初의스텝을내디디는것이나 아닌가하는 觀測이行하고잇다 또 체코슬로바키아에잇서서의 주데텐獨逸民族問題도 會談의議題가될것으로 豫想되나 [illegible]

忠淸南道地方의 南總督視察日程

南總督은 五日午前七時五十分 京城驛發車로 忠南地方視察을떠나게되엿는데 그日程은 다음과갓다

第一日 五月五日午前七時五十分 京城驛發 同十時成歡驛에到着하야 成歡牧場視察後 天安神社에參拜 天安郡廳에서 官民接見訓示、다음溫陽陸軍病院에 傷病兵을慰問한後 牙山郡廳에서 다시 官民에接見訓示하고 溫陽神井小學校를視察

第二日 五月六日에는 午前八時溫陽出發 同九時禮山郡廳에서官民接見訓示한後 禮山郡吾可面 驛村共勵組合及洪城農業專修學校를 視察한다음 洪城郡廳에서 官民接見訓示、여게서晝食을 畢한後 靑陽郡廳에서 다시 官民과 接見訓示하고 同郡九峰金山及 扶餘郡窺岩里古蹟을 視察

第三日 五月七日午前八時扶餘平濟濟博物館等을 視察하고 扶餘郡廳에서 官民接見訓示後 王陵祝察코 江景神社에 參拜、江景邑事務所에서 一般官民과接見 論山郡彩雲面 衛林共勵組合視察 正午頃 論山郡廳에 到着 官民에 接見訓示한後 여게서 晝食을 마치고 公州郡廳及 公州地方法院에가서 官民接見訓示後 公州中學及山城王陵等古蹟을 視察하고 儒城에서 宿泊

第四日 五月八日은 儒城部落을視察한後 大田忠南道廳에 到着하야 當地各機關을視察하고午後四時二十三分京城驛着列車로歸京

法制局과折衝次 山澤事務官渡東

山澤審議室首席事務官은 明五日午後四時十五分發『아까쓰끼』로 左의諸事項을携行하고 渡東 法制局과의 折衝에當키로되엿다

一、總督府官制改正
一、臨時職員設置制
一、稅關官制改正
一、警察署官制改正
一、稅關署官制改正
一、司法官官制改正
一、專賣令改正
一、工業組合令
一、道路及救助基金令
一、不動產融資損失補償令
一、臨時通貨法施行

警察部長會議 緊張裡에四日로終了

事變下最初의 各道警察部長會議最終日은 四日午前九時부터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催 總督各局及軍部로부터의 指示、注意希望事項에 對하야 各局長及北野軍參謀長 二宮憲兵司令官으로부터 各其陳述이잇섯고 午後는出席各道警察部長으로부터 意見希望等을開陳 다시事務的協議를行하고 全議事日程을終了 散會하엿다 [illegible] 인 三橋警務局長은 開會劈頭에잇서서 南總督으로부터 披瀝된局下 警察活動의 三信條를基本으로한 訓示를 [illegible]

四萬五千噸主力艦 建造權限을賦與

빈슨案米上院通過內容

【華盛頓二日發同盟】米國上院은 去十九日以來總額十一億五千六百萬弗의 빈슨海軍擴張案을 中心으로 軍擴贊成派와 反對派議員間에 連日 白熱的論戰을 展開한바二日마츰내 同法案을 表決에 附한結果 五十六票對二十八票의 大多數로써 이를可決하엿다 빈슨案은 上院의 同意를 求하려고 下院으로 再回附한바 上院의 修正要點은 左와如하다

一、政府에 對하야 三萬五千噸主力艦代身에 四萬五千噸 一萬五千噸航空母艦代身에 二萬噸航空母艦 建造計劃의權限을 與함 但右는大統領이 第三國이倫敦條約의 制限을 超過하는 建艦을 行하고잇는事實 乃至計劃이 잇는것을 認定할境遇에 限함 그러치안흔境遇에는 主力艦噸數는 三萬五千噸 航空母艦噸數는 一萬五千噸으로할것
一、諸港防備用의 輕快速艦艇建造實驗費 千五百萬弗을支出함
一、下院에서 承認된 實驗用航空艦建造費 三百萬弗 發明獎勵費 一千二百萬弗 合計千五百萬弗을 削除함

米上院에서可決 빈슨하ー그修正案

【華盛頓二日發同盟】米上院本會議는 卅日 빈슨擴張案에 對한 빈슨하ー그修正案을 票決에 附한 結果 五十六票對廿票의 大差로써 이를可決하엿다

陸海軍所管의 地方長官會議

【東京電話同盟】陸海軍所管地方長官會議는四日午後二時부터 芝水交社에서 열렷는바 劈頭杉山陸相 米內海相으로부터 訓示가잇슨後 總議에들어가 杉山陸相으로부터 事變에處하는軍의根本的態度確固不拔의 決意를披瀝、米內海相으로부터 長期戰에 對應하야 蔣政權을 淸滅케할海軍不退轉의 決意를 表明하고 銃後國民至誠의後援을期待하는 旨를强調하야 各地方長官의協力을要望 다음에柴山陸軍軍務局長으로부터의 指示事項、林步兵中佐의 最近의戰況에對한 說明이잇고 海軍의所管에들어가 井上軍務局長의 海軍作戰經過及 列國海軍의狀況說明이잇슨後 會議를畢하엿다

營林局長會議에 山下林政課長出席

農林省에서는 來五月九日부터 四日間營林局長會議를 開催하고 國有林經營及林政上取할方策 對滿林業移民 國有林事業勞働者에 對한 施設等에 關하야 協議키로되엿스므로 總督府에서도 山下林政課長 柴山技師가 出席키로되엿다

辭令

【東京電話同盟】

正四位勳三等 工藤義男
任朝鮮總督府鐵道局長(一等) (前鐵道省經理局長)

朝鮮總督府鐵道局長 吉田浩
依願免本官

樞密院定例本會議

【東京電話同盟】四日의 樞密院定例本會議는 午前十時부터 宮中東溜間에서 天皇陛下御親臨下에 開會 平沼、原正副議長各顧問官 村上書記官長 政府側廣田外相、吉野商相其他各閣僚 船田法制局長官列席

一、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批准에關한件 (昭和九年倫敦에서調印)

을上程 村上書記官長으로부터審査報告가잇슨後 採決한結果 原案可決 天皇陛下入御하옵신後 同二十分散會

地方長官會議第三日

【東京電話同盟】文部省所管의地方長官會議는 四日午前九時로부터 本省大會議室에서 開會、石黑北海道長官以下各地方長官、伊東[illegible] 文部省側木戶文相、伊東兩次官、菊池敎學局長官以下各局部長、督學官等出席 劈頭 木戶文相으로부터 國家總動員法施行、靑年學校義務制、實業敎育振興、體育振興等文敎各般에 亘한 訓示를 行한後 各地方長官으로부터 右訓示에 對하야 여러가지 忌憚업는 意見을 交換하고 十一時지나 散會하엿다

兩會社總會 來十二、三日頃開催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北支開發、中支振興兩會社設立委員任命과同時에 速히第一回總會를 開催하려고 諸般의準備를 進行하고잇든바 近衛首相의關西旅行歸京을기다려 來十二、三日頃 第一回總會를開催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兩會社는 本年七月初旬設立許可게될것으로보인다

時事解說 주ー데텐獨逸黨

◇獨墺合倂以後의 歐洲의 全神經이 체코問題에 集中되고잇는때에 체코內의 주ー데텐獨逸黨이 칼바드에서열린 通常의 年次大會에서 反政府黨勢를 올리고 黨首헨라인氏가獨逸系의 獨逸問題等 여러가지爆彈的要求를 提起하야 消息通側에서는 체코國內의 獨逸人의本領合倂은 不可避的인것이 되리라고까지 내리게되어 相當한 센세이숀을 惹起하게되엇다。

◇주ー데텐(Sudeten)은 南獨逸地方一部의 체코領이라는 一部를 包含한 地域名이며 이 地方住民은 大部分이 獨逸人으로 체코內의 獨逸人約三百萬中 이 地方에만 二百萬이 居住한다고한다。주ー데텐獨逸黨이라는것은 勿論 이 地方의 住民、即獨人을 中心으로한 政黨인데 이는 地方名을 그대로 부른까닭이오 正式黨名은『南獨逸黨』이다。元來 체코國內에는 小黨이 分立되어 잇어 獨逸人中心의 政黨도 一二가아니나 나치스運動擡頭以來 나치스의 系統을밧은 獨逸國民社會黨과 獨逸國民黨의 兩黨은 一九三三年十月에 政府의 彈壓으로解散까지 當하엿다 그러나 이에 不拘코 나치스勢力은 날로 伸張되어 다시 南獨逸黨으로 集中된것이 一九三五年五月의 總選擧에서는 四四議席을 獲得하야 下院의第二位를 占하기 강有力한 政黨이 된것이다。

◇이 주ー데텐黨의 領袖는 콘라드·헨라인氏로 체코內의 獨逸人의 代表的人物이며 [illegible]

[illegible] 도 參加치안코 겨우SB型、E十五型、E十六型의 數機가 飛翔하엿슴으로 觀衆은 大端히 失望하엿다고한다

本社參觀

▲城南永興郡仁興公立尋常小學校生徒百三十三名 田村名夫氏引率下本社見學
▲京畿道江華郡合一尋常小學校生徒百廿名 敎員李濟允氏引率下四日本社見學
▲京畿道金浦郡陽村面陽谷里婦人講習會員十九名 洪在衛氏引率下四日本社見學
▲西部公立尋常小學校生徒九〇名 訓導李應培氏引率下四日本社見學
▲間島省和龍街恩眞國民高等學校生徒五十七名 奈結納氏引率下四日本社見學

八面鋒

◇ 히、무兩首相會談에는 英佛關係에 對한 對策을 協議햇다고。
◇ 獨伊가 結束하니 英佛이 同盟하는것인가、英佛이 結合하니 獨伊자 同盟하는셈인가。
◇ 軍備擴充의 口實을 서로 他國에 두는것가티 同盟外交에도 他편에 理由는 두는판。
◇ 明日부터 兒童愛護週間。누가 제자식을 사랑치 안흘사람이 잇스랴만、옷만 잘이피고 잔등이나 또두려 주는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 병 안걸리게하고、酷使하지안코、공부시키고、알길 여러주는것이 眞正한 사랑。
◇ 어린이를 所有物이나 장난감으로 알지말고 집의 꼬츠로 알라。
◇ 特産品展覽會 各方面의 要望으로 四日間 延期。
◇ 三萬餘名이 보고도 오히려 不足하야 會場門外에 成市의 盛觀。
◇ 오시라、보시라 朝鮮의 特産品을。

徐州驛其他猛襲

倉庫線路等을爆破

【上海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 我海軍航空隊는昨三日左記攻擊을 敢行하엿다

一、徐州驛攻擊에向한 約三十機는 午後二時半頃 驛倉庫及構內線路에 對하야 地上砲火를 冒하고 徹底的爆擊을하야 倉庫의大半을 爆破하고 數個所에 火災를 이르키고 線路數個所를 切斷한後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二、蕪湖方面 南陵 埠寧 西河鎭方面에서 部落에依據한 支那軍集團部隊를 爆擊 이에多大한 損害를주고 數個所에火災를 이르키게하엿다 特히埠寧에서는 火藥庫가 猛烈히爆發하야 炎上하는것을보앗다

抗日테로團 支那人에게被殺

【上海三日發同盟】二日午後七時半 佛租界八仙橋洛克路十一號 食料品店公司二階에 一名의 支那人靑年이 闖入하야 會食中의 支那人男女六名에 向하야 별안간 拳銃을亂射 主人格의 支那人一名은 身에二彈을맛고 即死하엿다 곳달려간 工部局警官이 取調한結果 所持品其他에依하야 被害者는 前廈門警備司令陸軍少將李宗黃으로 現在는李嵒이라고 變名하고 上海에 潛伏하야 別動隊長任務를맛고 上海攪亂을企圖하든 抗日테로의 重要分子인것이 判明되엿다 그리고 犯人은藍衣社員인듯 兩腕한支那人으로 아직 逮捕되지안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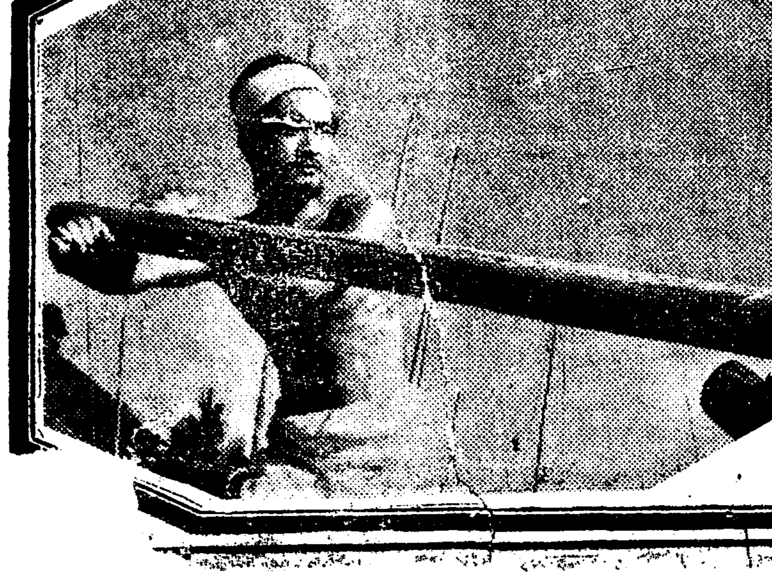
陸海線各地도爆擊

【靑島三日發同盟】第○艦隊報道部發表

一、○○部隊飛行機○機는 二日靑島西方의 隴海線을 偵察攻擊 碭峰縣의 東西列車及停車場附近의 敵數團을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一、右飛行部隊는 五月一日隴海線新安鎭西方에서 約三十輛의 列車를 爆擊하야 其大半을 [illegible]

蘇聯政府內部 政軍對立激化

[illegible] 잇서서의 政府와軍部의 對立은 [illegible] 부르헬元帥의 野望에對하야 疑惑을 품고잇서 이미 極東軍局은 부르헬元帥의 部下將校는 거이全部交代或은 處刑되고 남은것은 부르헬元帥一人뿐으로된것은 周知의 事實인데 二日莫斯科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昨一日莫斯科의 赤色廣場에서 擧行된本年의 메이데이 觀兵式에는 [illegible] 民委員보로시로프元帥를 除하고 今回처음으로 스탈린氏其他政府側領袖는 下方으로 引下되엿다고한다 右는 蘇聯政府가 政府內의 政治部의 位置를 軍部의 上位에 두려고한것을 明確히한것이라하야 注目을끌고잇다 當日軍部要人들은 例年과如히 最上段의閱兵席으로올라가려하다가 係官에게 注意되어 不得已下部의席에 [illegible]



五月六日封切
同時 女傑ターザン 肉彈山岳戰
優美館 明治座 螢の光

漢江
朝鮮語全發聲 國語字幕版
高麗映畫社提供 半島映畫社製作
原作、監督 方漢駿
調色 金燐 李翼
撮影 梁世雄
主演 尹逢春 李錦龍 崔雲峰 玄舜英 具紫燕 金一海 金德心

鄕土演藝의最終日

沸騰點을넘은滿都人氣

名唱大會의第二夜! 失機는千秋의遺憾

番外로地方民謠併唱

본사주최의 팔도녀류명창대회(八道女流名唱大會)의 첫날은작삼일밤에 공전의 성황으로 마치엿거니와 사일밤입추시에는이것의 제이야(第二夜)를 역시부민관 강당에서 열기로되엿다

이 모임은 항간의명창대회와달리 실로 조선팔도의방방곡곡에서고르게 뽑아내인 여류명창들을 위시하야 오래전부터명창으로 이름을날리던 신해중월(申海中月) 오비취(吳翡翠) 등의노장들이 일당에모이게되엿스므로 그인끼는조일의입장거절을당한 관중이수천명이리는데서 웅변으로표시되고잇다특히 이밤에는번외로 서도(西道)남도(南道)경기(京畿)관북(關北)등의 지방지방의명창들이 면목을갈러서 그지방대표적민요와 노래를 부를것이므로 이것은향토예술대회 최종야를흥흥히벗내고야말것이다 더욱 제일일의 경험으로 보아서 정각전에 입장자를 정리하기가 복잡함으로 정각전다섯시반부터문을열고 입장자를 받들러이므로 실기(失機)의유감이업도록하는것이 조흘줄한다

(사진은 출연하는 여류 명창들의 일부)

十日間連日滿員!

民俗藝術最終夜의饗宴

한편민속예술대회도 사월이십오일에 막을열어 십일간주야로 개연하엿스나 이날까지 번번히 초만원을이르우고 널리민속학게(民俗學界)와 사학도들의 물의를 이루키엿슴은물론 일반인사들에게 절찬을받고 뜻기픈잔치가 마스막밤을당하엿다 산대도감 봉산탈춤을위시하야 결승패 경기와창 팔두각씨 줄타기 땅재조 맹인재담등 실로만반진수의내용과 화려하며 아취(雅趣)가득한무대가 흥분과 감격에싸여서『클라이맥스』를 될것이다 아프로어느때 또이러케뜻잇고 충실한내용의 향연이 우리에게다시잇슬지 그것은 기필할수업스나 지금가래서는 숨처럼 대하기어려울것이므로 만도의인끼는꿋나라는이모임에 매여달려 조급스러울고잇다

學生見學團遝至

會場은산敎室

地方見學團들도多數히參觀

特産展은連日雜踏

본사주최 조선특산품전람회는 으로는 미증유의 성황을보이고려팔일동안 순식간을 끈치안는 잇는데 팔일하로동안 이전람회입장자의 사태로 이가튼 사업 를 견학온단체는 인천(仁川)의 팔십명 당진(唐津)의 사십명 배재(培材)중학교오년생백명 강화도길상소학교(江華吉祥小學校)아동일백이십구명 부내 대동상업학교(大東商業)생도 이백명 원산진성소학교(元山進誠小學校)아동구십명 인천세경청년단(稀京靑年團)이십사명등 게원에게 게출한것만도 칠백명이넘는다 그박게 총망중게원이 기록하지못한 단체까지합하면 팔일중의참관온 단체만 천명이 훨신넘오며 구일에는 간도용정(龍井)서온 은진(恩眞)국민고등학교생도 오십칠명, 함흥영흥(永興)에잇는 인흥(仁興)공립심상소학교 아동일백삼십팔명 강화(江華)합일(合一)소학교아동 일백이십명 천교(川郊)공립심상소학교 아동구십명이 견학을하고 도라가 전람회의 인기는 요원의 불길가튼기세로 더한층 고조되고잇다 이외에도 특히 학생들이하학후에 끼리끼리모여들어가 각히 수첩을꺼내들고 책상머리에서 배운것을 실지로다시 연구하야견식을넓히기에 여념이업서 근일의전람회장은 서내학생들의 산교실로되어잇다

(사진은 전람 회장에 살도하는 학생단체)

遭難漁夫六名 奇蹟的으로救助

【新義州支局特電】기보-이일오후한시 철산군 부서면도호동(鐵山郡扶西面道串浦)근해 삼해리가량되는곳에서 조난한 어부유보삼(劉甫三)외오명을 수사하기위하야 출동한철산경찰서원은 삼일오전열한시 조난된 어부들을무사히 구조하여가지고 돌아왓는데 구조당시의 상황을 듯건대이날오전여덟시 어영도(魚泳島)서방이해리 해상에 전복된배를 발견하고 현장에급행 다섯명은 배창등에 매달려잇는것을 구조햇고 또 한명은 전복된배의 배속에서 희미하게 신음하는 소리가들림을보고 배미를깨트리고 기적으로 살어잇는것을 구조하엿다 조난된지이십시간을 물가운데서 살어잇섯다는것은 실로희한한일이다

滿洲行旅客激增

鐵道局急行增發計畫

만주방면으로 가는려객은 점점만하저서 부산발(釜山發)신경행(新京行)급행『히까리』에는최근에하로에 평균이백구십명이나되는만큼 승객이 잇섯다 더욱이 지난사월에는 작년사월에비하야 이동은 삼십퍼센트 삼등은 일백칠십퍼센트나 격증하야칠다 그래서 이와가티 작구 느러가는려객을 어떠케해서든지완화시킬방책을 강구하고 잇는터인데 결국부산 신경사이에『히까리』와 가튼 속력을 가진급행차한회를 더운전하기로 계획하고잇다 그리고 현재의『히까리』는『아까쓰끼』와가티 특별급행으로 고처서 정거하는곳을적게하고 지정석(指定席)도 설정하야 그럭자로 몰러들게될려객을 제한할려고 계획을세우고잇다한다

中等敎育擴充計畫

新設學校七十五校

개성조선교육령의 실시는 조선의 교육전반에 대하야 비약적진전을 예상할수잇슬뿐아니라 제이차조선인중등교육보급확충계획 실시기간을 단축함은 일층중등교육기관을 가급적속히 확충할 필요가 절실함에의한것이므로 총독부에서는 소화십사년도부터 소화십칠년도에이르는 사개년동안에 각도중등학교의 신설과 학급증설계획을세우는동 마치내 그구체적진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되엿다 그런데 중등교육확충계획의 실시상황은 다음과갓다

◇計畫

	校數	學級數
新設	七五	四二〇
旣設	六二	二八〇
計	七五	七〇〇

◇實施

	校數	學級數
新設	三	一二九
旣設	一八	八〇
計	二一	二〇九

◇未實施

	校數	學級數
新設	五四	二九一
旣設	四四	二〇〇
計	五四	四九一
合計	一五〇	一四〇〇

대개이상과가튼데 실시라한것은 소화십이、십삼량년도에 실시하는것이어다

志願兵訓練所

來月十五日開所

于先城大法文學部에서

조선인의 지원병(志願兵)을양성하는 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陸軍兵訓練所)는경성 청량리교외 양주군공덕리(楊州郡孔德里)의재생원(濟生院)용지에 건축키로결정을보아 불원공사에 착수케할것이나 우선그건물이 되기전까지 제일기생은 경성대학 법문학부(城大法文學部)구내의교사일부를사용키로되엿다 지원자의 입소식은예정대로 유월십오일까지에 거행키로결정되엿다 그러고훈련소의신건물은 근일중에입찰하야 곳공사에착수하야·칠월말까지에는완성할예정이다

一日平均輸送 九百五十一名

철도국에서 조사한바를 보면지난달 십칠일부터 이십오일까지열흘동안에 만주로 직통하는려객은 하로에 평균 구백오십일명이엿는데 그가운데 봉천행(奉天行)려객이 제일위로 사백구십오명이며 신경(新京)에이백사십구명『할빈』에일백사명 북지(北支)에일백삼십명이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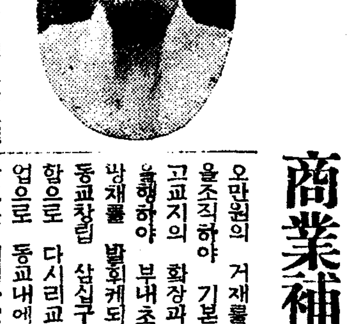
嘉納治五郎氏死去

【東京電話同盟】올림픽代表로서 카이로會議에 出席하엿다가郵船氷川丸으로 歸朝의途에잇는 嘉納治五郎氏는 四日午前五時三十三分(日本時間)急性肺炎으로 死去하엿다는 入電이잇섯다

隆昌하는輔仁學校

校主李鍾奭氏三萬圓又投財

商業補習學校를設置



부내내수정(內需町)에잇는보인(輔仁)심상소학교는 한동안 역경에서 비상한 곤난을 바더오다가 현교주 리종석(李鍾奭)씨의발분으로 소화팔, 구량년에십오만원의 거재를던저 재단법인을조직하야 기본재산을 확립하고 교지의 확장과 교사의신축을행하야 부내초등사학게에 큰 방채를 발휘케되엇는바 금년은동교창립 삼십구년 기념에해당함으로 다시리교주는 그기념사업으로 동교내에 보인상업보습학교를 설치하고저 작년봄부터그수속을 당국에제출하얏든동 지난이월에 당국으로부터 정식허가를바더 즉시 개교준비에 착수하엿스나 교과서의 절충관게로시일을 끄러오다가 명오일부터드디여 개교하게되엿는데 어버리교주는 다시 삼만원을 내노아 종래교사에 대수선을 가하는동시에 상업학교교실을 정비하고 설비물품을 완비케하고 학교린접지 이백육십여평을 매입하야 운동장의 확장을 하기로되엿다 이에대하야 학교관게자와 학부형들은 물론이요 일반인사로부터 씨의거듭하는 장거를 칭송하야마지아니한다고한다

(사진은 교주리종석씨)

情婦의前借金

融通이犯行動機

西署에被捉된阿峴町强盜

共犯一名은指名手配

지난이일 오전세시경에 시내아현정(阿峴町)산칠번지의이백유십일호의 녁마장사 김갑두(金甲斗)방을 습격한 강도사건에대하여 소관용산서를비롯하여 시내각경찰서에서 물샐틈업시 수사진을치고 범인을체포하고저맹렬한활동을하던중 작삼일 오후두시경에 서대문서에서범인을체포하엿다함은 기보 하엿거니와 체포된주범은 본적을충북충주군충주읍영정(忠州郡忠州邑榮町)구번지에두고주소가 일정치안흔전과이범 김봉선(金鳳善)(三七)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바에 의하야 공범이명중 시내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 이백사십사번지의 십일호의 전과륙범 리춘선(李春善)(二三)은 곳체포하고 다른한명의 경북김천군김천읍욱정(金泉郡金泉邑旭町)에 본적을둔 리채향(李彩香)(二七)은행방을 감추엇스므로 지명통첩하엿스므로 불원간 체포를보리라한다 어제 서대문서에서 범인을 체포하기까지의 경과를듯건대 서대문서에서는 범인이피해자집내정에정통하고 또전과자인점에 착목하고 수사에 노력하던중 아현정 이백번지 음식점리명수(李明洙)집에 작부로잇는 최모란(崔牡丹)(二)에게 정을두고 자조다니는 전기김봉선이가 최모란과 가치살기를 약속하고 전차금삼백원을 오월오일까지 갑기로하엿다는 사실을탐지하고 즉시김봉선의 행방을엄탐하던중 하왕십리 이백사십이번지의신구호 최모란의실모가되는 정씨(鄭氏)방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체포하엿다 범행의동기는 역시정부와 가치살준비금의 필요를늣겻든것과 공범자인 두명은 돈에탐을내인것으로 그와가튼 범행을하엿든것이라고한다

(사진은우편이수범좌편이종범)

트럭殺人

사흘날오후다섯시쯤되여 부외 양주군와부면구암리(楊州郡瓦阜面九岩里)백사십구번지 앞길에서 놀고잇던 그동리 김경조(金慶祚)의 손자 원규(元奎)(三)는 동면 마석우리(磨石隅里)백이십칠번지 신성허(申聖許)의 화물자동차 운전수 한영근(韓英根)이가 경성으로부터 삼십이호 화물차에 세멘트 예순포대를실고 도라가는길에 잘못하야 뒤바퀴에치여 무참히도 즉사하엿다

吉野町小火

오월사일아침아홉시경 시내길야정(吉野町)이정목 백이십구번지 김덕환(金德煥)의 굴뚝에서 불이일어나 그집일부를 태우고곳지회되엿는데 손해는 오원이라고한다

나무장사울린 詐欺漢

나무장사를 울린자가 원수의 외나무다리에서 맛나는격으로 잡혓다 부내계동정(桂洞町)백삼십번지윤의선(尹義善)의 집에잇는 윤항섭(尹恒燮)은 작년시월 의주통(義州通)나무시장 윤길문(尹吉文)에게 나무이백원어치를 속여먹고 어때까지 피하야다니다가 사흘날나제 운이다하야 계동정백십번지압길에서 그만피해자에게 붓잡혓는데 종로서에서는여죄를 추궁하고잇다

反滿抗日軍出沒地에

國境警察機急行

寬甸縣에約一千名

【新義州支局特電】평북 초산(楚山)대안 만주국 관전현(寬甸縣)내에 삼일 동북반만항일군(反滿抗日軍)이라는 명칭을 가진 약일천명의 병비가 행동을 개시하여 불온한 형세를 보이고잇스므로 평북경찰부에서는 사일오전다섯시반 경찰비행기에 근등경부(近藤警部)가 탑승하고 현장에 출동하엿다

白茂線路盤工事完了

백무선(白茂線)연사(延社)사이의 노반공사는 재작년가을에 착수하야 요지음에완성되엿스므로 오는칠월부터 유평동(楡坪洞)공사구(工事區)를설치하야 드디여 선로부설공사에 착수하기로되엿다 한다

大邱商街에 大火

十五棟全半燒

【慶北支社電話】사일오전령시십분경에 대구부신정(大邱府新町)일백십오번지 고물상 김성태(金星泰)의 집에서 불이나서 린접한 자동차공장에 연소되어 휘발유통에 인화되자 불꼿은삽시간에 리웃상점에까지 옴마부터 피해가옥 십륙호 십오동중 전소구동을내이고 소방조의 활동으로 오전 한시반에 진화하얏는데 손해는 오만삼천 팔백원가량이고 그중보험에드는것이 사만원이라한다 발화의원인에 대하야는방금조사중으로 아직알수업고 이지대는 조선인상업의 중심지대로 깁흔밤중에 불의에 일어난만큼 벌거버슨채 피난을하는등 한동안대소동을 일으켰는데 최근의화재로는 처음보는 큰불이라한다 피해자의씨명은다음과갓다

▲李相烈 ▲金仁圭 ▲朴東達 ▲朴振守 ▲直井商店 ▲村島商店 ▲中島三郎 ▲李判守 ▲朴達元 ▲鄭東燁 ▲林七龍 ▲福山自動車修繕工場

金簪强奪逃走

昨日樓上町路上에서

부내동대문서 관내와용산관내에 하로동안에 강도사건이네건이나 이러나 시민에게 공포심을이르키게하는동시에 전시경관은 충동원으로 물샐틈업는 경계를하고잇는때 이번에는 종로서관내에 백주대로상에서 노파습격사건이 버러저 다시금경게진을 아연케하고잇다——사흘날오후세시쯤되여 부내적선정(積善町)삼십오번지, 임춘자(林春子)라는 칠십된노파가 누상정(樓上町)에잇는 친척집으로 가노라고 동정백번지압 큰길을 막대를집고 천천히 거러갈때 뒤로부터 이십사오세가량 되여보히는 훵공창복입은 괴한이 자전거로 갑자기나타나 노파머리에 찌고잇던 시가 팔십원가량되는 금비녀를 빼아서가지고 전속력으로 자전거를모라 어데론가 종적을 감추어버렷다 급보를바든 소관종로서에서는 시내각처에 강도사건이 자주뒤라 일층긴장하야 범인을엄탐중이다

色鉛筆

고중도지도 제색기를 어빼한다는말도 잇지만 언제나 조흔것은 제것이 첫째다 ◆조선이란곳은 웬일인지 옛날부터 남의숭내내기에 상당히 지첫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생활풍유지하는가운데 우리노래도 유의출도 노리도 근근히 유지해왓다 ◆저도 모를는사이에 만인이 제각기 가슴에 지니고잇는 구슬이 잇다면 그것은 오래된 사를두고 그민중사이에서 남모르게 걸러진정서(情緖)발로일것이다 ◆보라! 한번 북소리가울리고 노래가락이 흘러나올때만인의 마음은 저절로화하야 한꺼번에 어깨가 웃슥해지니 구슬이한알이라도 깨여저야 한다는 그장면이 어것이아닐까◆정다운재것 자랑스러운 재보배! 향토연예대회의 권위는 여기에 한층더 힘잇게빗나는것이아니라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잇스며 이로부터本邦을 經過하야 半島에 擴大되고잇다 低氣壓은 西伯利亞東方에 優勢한것이잇스며 靑島附近에는 弱한것이잇고함께東進하고잇다 天氣는朝鮮北部外에는 大槪흐리고 中部는雷雨가잇고 內地는 九州가비가나리는外에는 大槪흐리다 滿洲는 一般으로 개엿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은흐리고明日은흐린後에는개인다

昨日最高 一九度五
同 最低 一三度一
今朝最低 一二度一
今日正午 一六度一

今夜의라듸오

四日(水)第二放送▲午後六時橫笛獨奏鄭稷洙 피아노伴奏咸二榮 ▲六時二五分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趣味講演 李軒求 ▲七時三〇分 講演崔夏永 ▲八時獨唱權泰浩 피아노伴奏 賢愛多 ▲八時二〇分 八道女流名唱大會 府民館으로부터中繼 ▲九時野談 金漢雲 ▲一〇時一〇分國語講座(二)宋今旋

第一放送 ▲午後六時(東)合唱 ▲六時二五分(城)講演 ▲七時二〇分(東)唱歌 ▲七時四〇分(城)講演 ▲八時(東)浪花節 ▲八時三〇分(城)小唄 ▲八時四五分(城)箏曲 ▲八時五五分(東)物語

今夜

第一會場(府民舘)女流名唱大會

午後七時開幕 出演(第二夜) 八道重要都市의 名唱이 總出演

第二會場(假設劇場)民俗藝術大會

午後七時半開幕 山臺都監、줄타기、곡두각시 盲人才談전지 鳳山탈춤其他

東寶 藤十郎の戀

名優坂田藤十郎が藝に生きる烈々たる姿を浮彫にして日本演劇史の側面を描く!

林長二郎改め 長谷川一夫・入江たか子 最初の顔合せ

原作 菊池寛・脚色 三村伸太郎 演出 山本嘉次郎・美術監督 小村雪岱 作曲演奏 宮城道雄

藤原釜足 汐見洋・御橋公 瀧澤修・市川朝太郎 澤井三郎・永井柳太郎 由利直代・伊達里子 (東寶劇團)特別出演 片岡右衛門 市川羅之助 中村緑太郎 片岡秀之丞 與喜美子

東寶映畫 春季超特作 黄金篇!

廿世紀フォックス超特作 タイロン・パワー ロレッタ・ヤング ドン・アメチー 主演

狙はれたお孃さん

新聞社を引掻き廻す怪令孃!春のお笑は此の傑作から

愈々 五月五日封切

若劇

中等科、中等學校入學試驗準備科 速成科(英數國漢)

京城中等學院生徒募集

詳細來問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林町八二(黄金座向側入)電本六五三七

大邱府京町 本報慶北支社 電話 一三四四番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骨髓에기피든어렵고、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大小兩用 京城府長橋町八 製造本舖 慈祥局 振替口座京城三三三番

外科 X光線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軍手界大革命

副業의王座

專賣特許11518 實用新案17999

驚異的大發明專賣特許

自動式六指連續 即成手首고무編連續編成軍手製造機

軍手界의元老인大阪市住吉區阿倍野筋五丁目三十五番地西井由太郎氏는二十餘年前부터 軍手車足製造에 從事하야오던바 使用키 不便하고 能率이 低劣한舊式軍手機에對하야 恒常遺憾으로生覺하야 苦心慘憺研究에 熱中한結晶으로軍手製造中에서 第一困難한自動式五指連續編物、手甲部編物과手首部編物의三가지를 한꺼번에連續編物이될뿐아니라 손끗에서 손목까지는軍手機械의大發明을完成하야 專賣特許(第一一五一五號)와實用新案(第一七九九九號)을 得하야 不過短時日이經過한데도不拘하고 京鄕各處에서 大歡迎을 밧고잇습니다 그런데弊社에서 今般에 朝鮮總販賣權을獲得하야特價提供으로專屬製造家를大募集하오니勿失此好機하시고 台數에制限이有하오니 即時照會하시면 說明書無代進呈

三百臺限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電停前 ケンロー印軍手 朝鮮總代理店 鮮一社營業部 本店 大阪 振替京城二九四八五番

地方代理店大募集 府·邑·郡各一店限

六週年紀念 七色割引大賣出週間

五月五日부터十一日까지一週日동안

이大賣出은 每日한빗을定하야 그빗갈의 物品사시는 손님께 一割을 減하야드리는것인데 假令第一日이 米色日이라하면 米色物件은 全部一割을 減하는것입니다

但定價는 未安하오나 除外합니다

또이期間中「자투리」特賣가잇습니다

九鼎 鍾路네거리

祝朝鮮特產品展覽會

天下一品

깃고ー류醬油

[illegible]

깃고ー호마레醬油 姉妹品으로

樽詰 罐詰 壜詰

壜詰도잇습니다

資本金三千萬圓 [illegible] 一十萬樽

野田醬油株式會社 [illegible] 出張所

태

이러케허드러진 자세에도여자는 미를가젓다

손곱는수학려행 몸괴로운건굼물

더구나 규률을 지켭시다

요즘은 소학교 중학교할것업시 봄원족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합니다 이수학 여행이 여러 생도들에게 가장 깁븐일이여서 그야말로 손을꼽아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처럼 즐겁게가는여행이나 원족에 갑작이 병이난다던지 어듸 몸씨 다치다던지해서 외롱 떠돌서하는 례가해마다잇습니다。

이런 여행가는 생도들은 마음이 조타고 함부로 날뛰거나 하게해서는 안됩니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고장으로 가는 이만치 늘 조심하고 삼가야합니다。

一、감기、설사가튼 병에걸리엿슬때는 가는 가지맙시다。어찌다가 가는 그조흔 여행이나 원족에 빠지다니 웬말입니까 몸이 불편해도 기어히 웃어고 갓다가는 도중에서병이 덧치노흐면 더리고간 선생님들도 고생스럽고 자기도 몸을보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얼는 치료를 못하는 까닭에 여러가지로 큰일을 저즐르는수로 많습니다。

二、여행중에는 거창중에 열경을올겨우거나 땅중에 셔서 여되여거나한 사람은 오래동안배나 자동차를 려행은 피하는것이 좃습니다。그것은건강한사람은 웬만해 견듸여가저만 일정이상이 엇는사람은 여러가저로 괴롭고 고생스러우니 그만두는것이 좃습니다

三、인솔자는 삼십명에 한사람비례로 따라가면조습니다

四、의복은 물론 교복이나 간단한 통학복을 입을것인데 혹시 갑작이 날이 온산해진다든지 너무더워지면 바귀입을 짜켓트나 그밧게 엷은옷을조금만 준비하는것이 조습니다。

五、너무 군것질을 만히먹으면 배탈이 나기쉽고 전염병을 무저오기도 쉽습니다。

六、냉수、변도、과자、통조림도 다주의해서 만든지 오래지안은것으로 가지고 가야지 만일록은것을 가지고가면 중독을 일으키거 쉽습니다。

七、단체의 규률을 잘 직히고 함부로 저혼자 행동을 말어야합니다。자기 혼자하는 일에 늘 똑하지안은 화가생깁니다。

八、려행중갓다가는절안식구나 동무에게 선물을 만히사가지고올 오는데 별우 만히사는것은 아조 금물입니다

九、여행중에 사괴인이성(異性)은 특별히 주의해야합니다 함부로 가까워지지 마십서요

十、넘우고단하게 돌아단닌다든지 짧은날자에 여러군데를 밸니서돌녀 다니면 병이나기 쉽습니다 늘 유쾌하고건강해서 규측이 정연하고 신중한단체행동을 합시다

서고 원선 누구세든지 어떠게 대변을 정착하고 만일 거기중 여서야합니다。

세금을먹듯하는 술마시기와담배피우기

십전짜리담배의본전은삼전오리

팔월에맥주갑시또올라

우리몸에 그다지필요치안흔것으로 더구나 해롭다는말까지듯는기호품—술、담배가튼것은물까가올라 생활이괴롭게되엿다고해서 끈허버릴수업는것에 심각한 번민이잇습니다。이것저것을 생각지안코 조와서하는 것이라할지라도 조금만 잘못하면막대한 소비를 하게되는수가만습니다。

◇

질겁고 깁버서도술 울화가치빠치고 심난할때도술 조와서떠뜨러질수업는술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한정도에 끄칠일이지 오몸에 퍼붓다십히 먹는것은노릇의정도를지나 여러방면에 지장이 생기기수운것입니다。

정종은 일년에 약사백이십팔만석이 전일본내에서생겨 납니다。한되에 일원평균 치드래도 사억원이요 조흔쌀을 삼백만석이나술밧을지어 업샙니다。요근래합성주(合成酒)라고해서 쌀을쓰지안코 당밀(糖蜜)알콜에 향미료를 석거맨든 술이팔립니다 다만 국가경제로보아 의미깁흔일이나 술꾼들에게 그리환영을 못밧는것은 대단유감입니다。

술은한되에 대해서 오십전의 세금이붓고 맥주는 한병에이전가량올랏습니다다만 팔월일일부터 다시일전이 오르게된다하니지난해까지 한병에 삼십칠전에먹는맥주라면 올여름에는 사십전이될것이고 조키하나에 오십오전하든것이 오십팔전이될모양이니 버큼좀 더잇는편이면 몃십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국산의 비싼『위스키-』나『랍』『징』『세리-』『삼펜』『리큐-르』등속은 모두 수입금지이며 재고품이래도 오할이상 갑시올랏슨즉 카페-나빠-에서 비싼돈을내고 먹는양주는 모두가 국산알콜에 수상스러 빗갈과향료를 탄것이라고볼수잇습니다。

◇

전에『피죤』피우든사람이 십전짜리『미도리』나『가찌도끼』로 내렷다할지라도 하로에 두세갑식 피우는날에는 여간일이 아닙니다。옛날로 도라가서 곰방대에 쓴담배로 아주전향할수는 업다치드래도 봉지담배피우든사람까지가 요새 권연을 물고나선다는것은 좀생각할일인것가태요 이십세전후의청년은 구태여 담배를배울라고 애쓸필요도 업거니와 어른들이 보고던 한사하고 말리십시요。특히 부인네가 담배피우는것은 모체(母體)에 해되는점이 만흐속 부덕(婦德)으로 보아서도 이런버릇은 애써살까닭이 업습니다。

담배의원료는 약 일할가량을 외국서 수입하고 그나머지 구할은 국산입니다 해마다 전매국에서 파는담배갑시 약삼억일천만원인데 일억이나되는 국민이 각기삼원식 담배갑스로 내노는셈이됩니다。전매국에서 담배를파라 어억원이라는 순이익을 보게되니까 일원어치 담배를 살말이면 육십오전의 세금을 나라에바치는 셈입니다 어 얼마나 엄청나게비싼 세금입니까

애기의신경질은 부모가기르기탓

대개자세하고재조가만흔편이니 장처를보아잘지도할일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아이들이 신경질노나는수가만습니다。그러한신경질인아이들은 교육하기가 대단히 힘이들고 아차잘못하면 정신병자가 되기도쉬우니 부모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적당한 지도와교육을 주시도록해야합니다。

신경질의원인은 선천적으로되는것도 잇스나 대개는 후천적으로 가정형편이라든지 그주위의 환경으로되는수가 만습니다。

첫재로 부모되시는 분들이자기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다룰수는업습니다。즉말하자면 어른이 성이낫슬때 공연히 아이들을 가지고 욕질을 하거나 때리거나해서 풀복는수가만흔데 이런것은 절대로 주의하서야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이유쾌할때는 너무 아이들을 귀여한다든지하는것도 다어른들의변덕이요 애들께 조치못합니다。

특별히 신경질인애는 어른의 눈치를 잘살피므로 어른이 함부로 꾸짓거나해서는 아이의기를 꺽는것이돼서 해롭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경질인애는마음이 약하고 거트로 발표하기보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조와합니다。

더구나 이런아이는 다른사람파석지여 웃고떠드는것을 극단으로 실혀하기때문에 이것을부모되시는이들이 특히 지도하지안흐면 아이가 기를펴지 못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할수잇는대로 다른아이들과서겨서 활발하고 유쾌하게 놀도록 지도해주서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일사록의지력이 약합니다。그러면 부모되시는분은 어떠케한든지 아이에게 강한 의지력을 길러주는것이 조흡니다。

의지력을 길느는데는 첫재로 무엇이던지 제손으로하고 제재조대로해서 저혼자서도 무엇이나 잘할수잇다는 자신을 길르도록해야합니다。이자신은 곳의지력이되는수도잇스니까요。

또 이러한 아이는 조와하는것실허하는것이 만습니다。제일로 음식에 대한것이 심합니다 고기를 안먹는 아이 나물을안먹는 아이 김치를 안먹는 아이—그러나 이런 아이들은조와하는 음식에다 실허하는 음식을 조금식 석거먹이면 조습니다 어떠케든지 편식은 시키지마서야합니다

공부하는것은 한꺼번에 너무 오래시키거나 억지로 두둘겨시키지말고 알맛게 시키고 알맛게 쉬워야합니다

잠자는것은 아주 충분히 자도록해야합니다 이런애는 다른애들보다 삼사배나 더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밤에 오줌을 싼다든지 자다말고 벌떡이러안는다든지 깜작깜작 놀랜다든지하는것은 죄다 신경질인아이의 특징인즉 잠을 충분이재워서 정신을 안정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러한아이들은 성질이 자세하고 재조가잇고 솜씨한 장점이잇는데 부모되시는분은 그러한 장점을 잘지도해서 살리도록 해야합니다。

어쨋든 신경질인 아이는 보통아이보다 지도하기가 좀 어려운즉 특히 이런애기를 가진 분들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딸기잼 맨드는법

조금만 잇스면 주먹가튼 양딸기가 해여지겟습니다。딸기는 그냥 먹어도 조코 잼을 만들어두고 팡에 발러 먹어도 조탑니다。

잼을만드는 방법은 먼저 조흔 딸기를 꼭지를 죄다 따버립니다。그다음 한번 소금물에 씨처냅니다。그래가지고 물을 조금 붓고 약간 불에 천천히 끄리는데 딸기알맹이가 흐느적흐느적 풀릴때까지 끄려가지고 거기에다 딸기와 가튼분량의 설탕을 너허가지고 또다시 끄립니다。

딸기와 설탕이 한데 녹어서 무처럼되거던 끄내시켜가지고막 애가 꼭맛는 병에 너허두고먹습니다。

지차리우

의사의전화통

아버지가 편찬으서서의사가 왓지요。복순이는 수동이보고 슬쩍 무럿습니다。

『병이잇는지 업는지 의사는 어떠케알까』

『알구말구 배에다대고 전화를하는데 모르겟니』

(글쓴사람 조윤경)

신선한봄채소도 겁나는건기생충

열에아홉은재엽시걸려 잘씻서먹어야할상치쌈

요즘은 차차 푸성귀가 흔할때가되엿습니다。그래서 찬거정에 좀 덜니워지는데 채소는 늘 말하는바와가티 사람몸에 유익하고 갑도 싸므로 흔해들먹게됩니다。

그러나 채소의 제일 질색할것은 적거에 기생충이 부러잇는것입니다。기생충에는 여러가지가 잇스나 제일 만코 무서운것은 회충하고 십이지장충입니다。

이러한 기생충은 대개아시는바와가티 본래 이런기생충을가진 사람이 보아노흔 뒤가튼데 무수히 만흔 알을 석거가지고 잇다가 이것을 채소바테다 거름을 내면 자연 버러지 알은 죽지안코 배추나 무나 그밧게 어떤 채소에라도 부러잇게되는것입니다。

그러케 부러잇는 알은 웬만하면 죽을것갓제만은 그러케쉽게 죽지안습니다。약간 축축한 채소입파리에서는 참으로 평안하게 살어갑니다。

더구나 회충알가튼것은 뜨거운 햇볏을 바로 쪼인다거나 뜨거운물을 붓기전에는 아주정독이 오래살어서 일년은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릅니까。그까짓 벌레알이 웬걸 그러케 오래살겟느냐고햇다가는 큰일이 안닙니까。

그리고 시골사람은 백사람이면 백사람다 이기생충을 가저고잇습니다。채소란 본래 각가운곳이라도 시골서 섬으는거요 또자연 거름도 거기에서 나는것을 쓰니 사실 채소는 생각하면 전혀 기생충 덩어리일것입니다。

이러한것을 우리는 그대로먹습니다。생치도 그러코 쑥갓도 그러코—。그러니 채소먹을때 제일 주의해야할것은 기생충소독이 아닙니까。

기생충을 소독하는데는 아모래도 끌는 물에 채소를 살작데저내거나 소금에 저렷다 먹는것이 제일 조흔방법이지만 그럴수업는경우에는『크로로칼키』라는 약을 물에다고 거게에잠시당거 소독하는게 조습니다

그런데 기생충가운데도 십이지장충은 제일 무섭습니다。어린배때저얼은 금방까서 적은버러지가 되엿슬때는 사람의 엽으로 드러가저안어도 그냥우리몸의 어떤돈재 닷키만하면 살을 뚤코 드리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밧가튼데도 함부로 드러안질것이 못됩니다。요즘가티 날여따듯해지고 습기도 축축한때는 특별히 이기생충들이 발동을해나는것이니 주의하

長篇小說

愚氓 【21】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敎主와그아들(一)

울며 섬겁 그믐날 다 저녁때나 되여서 『런닝샤쓰』하나만 입고 바지에 잠뱅이은 채조복마당으로 뛰여 나와 한참 설나게 떡을 치고 잇섯다。원래는 아침 날절에 일직어니 해져우처먹것이 떡뫼와 안반을 얻어 집에서 그때까저 꼿치나 져 안허 그는 주인 섣써를거들어 한바절 지점개질을 하고 어제서야 떡멘을 잡은것이다。

『쳐!』

『쳐서!』

떡뫼가 한번씩 올때마다 안빤 여메 쭈그리고 안저서 소매 겻고 대령하엿든 신씨가 연해 매마즌 자리에 물칠을 한다 놀여난 조각을 접어 준다。또 엽구리로 빼저나온 놈을 옥여 넌는다 밧참 바뿌다。

순동이가 왼통 꿀꺽 바께 나가서

『너 우리집이서 떡 친다 떡 쳐。인절미 허는거야 인절미』

하고 재깡 갈득히 선전을 하여 노흔 통에 동리애의 조무래기들이 대여섯이나 압마당으로 몰려 들어와 떡 치는 소리 말고도 집안이 제법 부산하엿다。

그러한 중에 학수 하나만은 홀로 방안에가 들어 안저、잡지를 뒤적어리고 잇다。책장을 넘기는 바른손 엄지와 검지에 붕대를 처맨것은、아친에 불에다가 손구락을 덴 까닭이다。

모다들 바쁘게 일하는데、자기 혼자만 손님 행세를 하고 잇기도 얼마쯤 마음에 거북하엿거니와、또 방은 작난도 삼어、

『어디、내가 좀 해볼까요? 아주머니。』

지짐개질 하는 여프로 닥어가려니까、신씨가 채 아모 대답도 하기전에、마의 장울 보고 도라온 차문달이가、

『아따、양반대 데렌님은 데렌님 답게 점잔케 게시지 안쿠……、무어 지짐개질은 쉬운줄 아나?』

객적은 말을 한마디 하기때문에、학수는 또리혀 바감이 생겨、고집을 피다시피하여 신씨와 자리를 바꾸어 안젓다。

그러나 돌로 나려간 주인아주머니가 숫앵 미를 디려다보고

『아마 불이 다 사윗나봅데 뜬숫 좀 더 넙시다。』

부삽에다 뜬숫을 하나 가뜩담어 가지고 오는 통에 잔뜩 불에달은 숫앵시전을 그만모르고 들어 정작 간전야 한조각 못 부처보고 재방으로 돌아와서 약을 바르다 붕대로 싸매다 대체 그런 모양흉한데가업섯다。……

전둥들어 들어 왓슬때 박게서『이로나라—』소리가 들린다 떡을 처다 말고 차문달이가손 동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분주히 문깐으로 나가더니 곳다시 들어와 학수 방에다 대고

『구선생이 오셧는데 들어오시랄까?』

한다。

바로 몃칠전에 학비를 전할어 왓다 갓는데、오늘 또 무슨 일로 왓슬까—、의아스러히 생각하며、

『아—니、내가 나가보지。』

하고、고무신을 꾀고 박그로 나갓다。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그대로 나란히 서서 골목 박그로 나가며、나즌 목소리로 다음과 가튼 대화가 잇섯다。

『저금 좀 오셧스면 하시던대요。』

『웨요?』

『파세는 그래도 대에서 하세야 안허시겟세요?』

『………』

『이재괴 내일 세배를 허세야 할께니까、아주 오늘 가 처 가서서 게서 파세허시는게 조치 안켓습니까?』

『………』

『될수 잇스시면 그리케 허시는게 조켓다고 분부가 잇스서서 아조 차를 가지고 왓습니다。』

『사람들을 만히 와잇겟죠?』

『사람들이요?…… 네ー、새해문안 여쭈러 울러들 와잇습니다만은 각기 다른데다 숙소를 정하엿고 또 안에 들어갈 리도 업스니까……』

『내일 아칩에 가볼 쓰』

『그러면 파세는—』

『게서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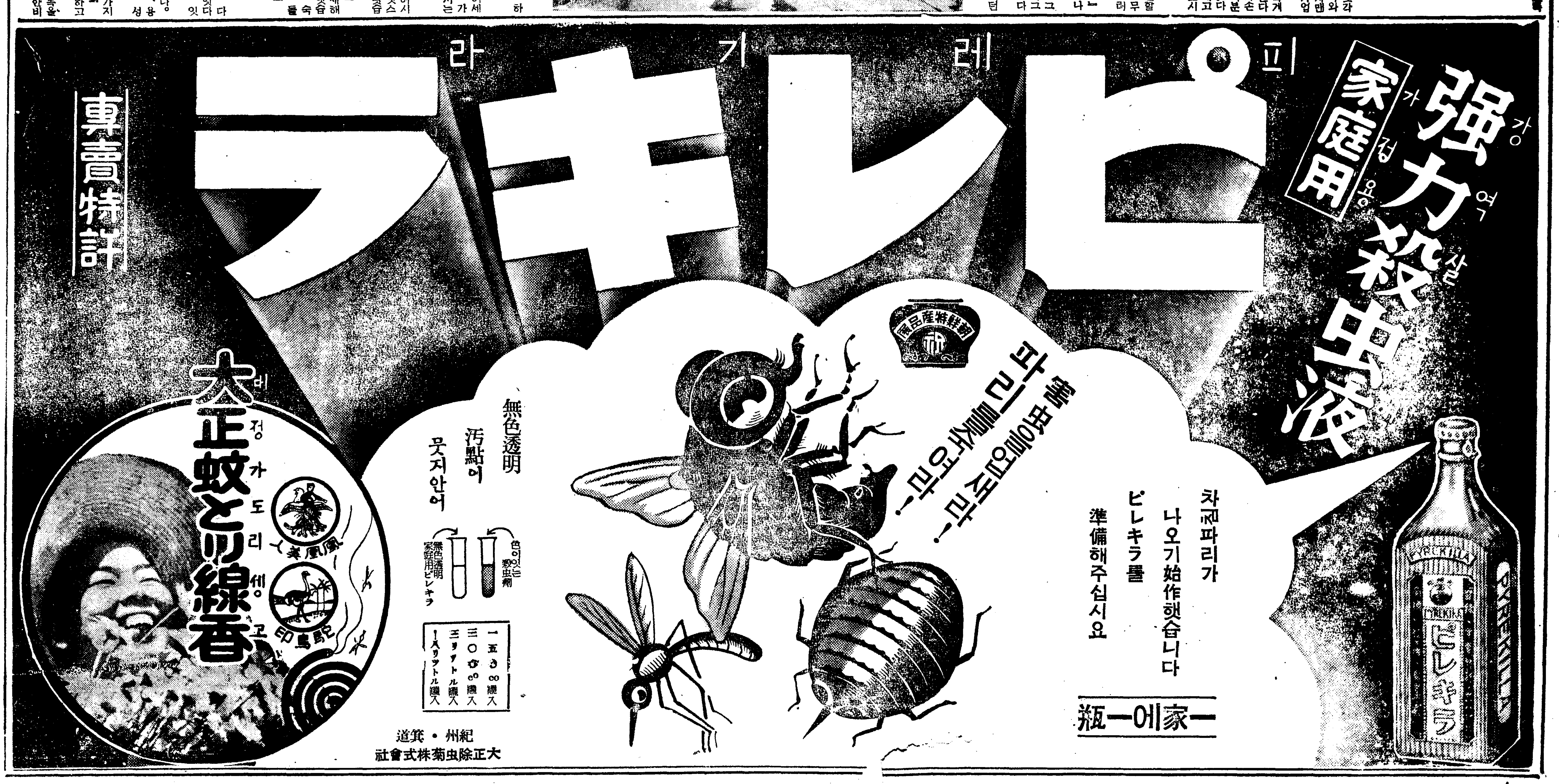
그때 두사람은 그골목을 다나가 수통 아페까지 이를엇다 그곳에 자동차가 기다리고 잇다。

구경득은 잠깐 머뭇거렷다。그러나 한번 말을 끄내면、용이히 물르지 안는 학수의 성미를알고 잇섯스므로、

『그럼、내일 아침에 차 가지고 모시러 오겟습니다。』

은근히 그의 아메 례를하고 자동차에 올은다。

학수는 다시 골목을 돌어가며、그 얼골에 우울한비처 엿섯다。



蔚珍行(一)

平海越松亭

崔益翰

鄕土文化를차저서 (10) 第三班 蔚珍篇

邑北十里許 海岸의白沙堆上에 蒼松萬株를 울타리삼고 푸른하늘과 마주대인 東海水를 외쪽으로 흘겨보고잇는 越松亭은 그만해도 壯觀이 아닌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업드보면 天下名勝인 關東八景의 一員으로 뽑히기에는 이러타할만한特徵이 不足하다할수잇다 新羅時에 永郞、述郞、安郞、南郞四仙이 처음에는 이곳이 絶勝인줄 모르고 和雖 過越 卽 조르면서지나가슴으로 越松이라 일홈하엿다는말도 필경은 越松亭의 外觀的平凡에서 起因한傳說일것이다 그러나 李朝成宗時에 畵工을命하야 八道射亭處를 모두 圖上케하야 書進한結果 우리 永興龍興閣과 平海越松亭이 [illegible]選되야 서로甲乙을 다투거늘 成宗이가로대 龍興의美麗、倡樂은 다만二絶이지만 越松은 松、月、海三絶을 兼하얏스니 맛당히 第一이될것이라하얏다

越松亭은 月松亭이라고도하며 亭의正稱은 越松亭이고 側稱은 月松亭이다 古人이 南越의松을 배에시러다가 시엇는故로 越松이라하얏단말과 靑月이 처음솟아 淸影이 松間에徘徊함으로 月松이라하얏단말은 모두 後人의 因文生義한것이고 兩者가 元來地名의 取音이며 月松보담은 越松이 더오랜名稱일것이다。

關東八景이 絶勝의名譽로서 세상에 차랑꺼리가되니 八景에對한爭奪戰이 이러나게되얏다 關東의南端地方人은 平海의越松亭을 八景에編入하고 歙谷의侍中臺를 除去하며 北端地方人은 侍中臺를넣고 越松亭을 어버린다 이뿐아니라 關東以外地方人과 또는 近世地誌學者는 往往히 侍中臺를 列擧하고 越松亭은 일홈조차잘 모르는것이 通例인듯하다

그러데 언제부터 八景의名稱이 생긴지는 모르나 지금明確히 볼수잇는記錄은 肅宗大王御製關東八景詩이다 詩中에 列記된 關東八景의 名稱及順序는 이러하다

鏡浦臺　竹西樓　洛山寺　越松亭　萬景臺(後來이대신淸澗亭)　三日浦　叢石亭　望洋亭

이것으로보아서 越松亭의八景參加는 相當한歷史가 잇지안는가 侍中臺는 輿地勝覽에記名되지안핫스며 또 李朝에侍中이란 官名이업섯슴으로 [illegible] 後人의野說에不過한것이다

肅廟御製越松亭詩

仙郞古迹將何尋　萬樹蒼松簇簇森　滿眼風沙如白雪　登臨一望興難禁

風沙如白雪은 果是 越松亭의 名物이다 筆者가 亭上에 登臨할때에는 風沙가尤甚하야거의눈을뜨지못하얏다

越松亭十景

平沙落雁、修眞晩鐘、龍岩日出、龜浦漁帆、猪場漁歌、鶴山淸霧、竹峰夜雨、南川暮烟、實山春雪、前浦漁燈。

學藝

五月創作 一人一評 (四)

倫理의稀薄과作品의空虛性

白鐵

내게 分擔된 金沼葉氏의『그늘미테서』(朝光)에 대하야 一言의 感想을 적는다。

먼저 이作品에 對한 抽象的인 讀後感을 말하면 그것은 이상하게도 左右로 두가지에 갈러진다。한편으로는 퍽 緻密해뵈는 印象、또 하나는

反對로 허비어뵈는 空虛感。部分에선 取할것이 잇스나 作品으로는 그存在를 無視하는 感情。이런 二律背反의 어긋난 感情을 作者는 곳 批評家가 언제나 準備해가지고잇는 職業的인 『惡作이라고 斷定』치말기를 바란다。序頭부터 寬大한척하는 不快한말을 띄엇는것가트나 이作品을 評하는 瞬間에잇서도 나는 必要以上으로 내自身이 批評人의 立場에 서잇슴을 認識하는때문에 될수잇는대로 公正(?)하고 正確하려는 愼重(!)한 決意를갓고 잇기때문이다。

첫재로 나는 金氏가 이作品에잇서서 新人으로서 차은 緻密한 努力을 산다。新人에게 흔히 特히 非難되는 用句의撰擇이나 文章이나 對話에잇서서 新人답은 未熟과 空疎를 翻譯者와批評家아페 보히지안키우하야 作者는 그方面에 오래時日을두고 添削과修正과磨礪를加한듯하다。그리고 그努力은 헛되지안허서 이作品은 그點에서 洗鍊된편이엇다 市井에서 싸옴을하는場面이라든가 술집老婆가 娼女들을 꾸짓는곳들은 作者가 시골에잇는관게상 이러방면에

多少經驗이잇는 便宜도 잇겟지만 그들이 느리는 수작과 그들새에만 流行하는 語彙를 놓아서다가 거기의 雰圍氣를 익숙하게 그려노앗다 어떤場面은 퍽 溜하고 露骨的인곳도 잇는데 文章은 俗에떠러지지안흔것도 作者의 功이아닐수업다 一般으로봐서 文章은 新人의것치고서 熟達한편이엇다 特히 그酒街를 끼고흘러가는 냇물을 그려간곳에잇서서 그運筆은 流暢하고 나타나는場面은 비비드하얏다。내가 비점을 이作品에 처내려간곳은 이게처음 그러데목이다 그러나 그런錬磨와 添削을 包含한追加的인 努力과 技巧的인것이 能히 部分을救햇스나 나아가서 全作品의體面을 救하지못한것은 基本的으로는 題材와의 關聯問題가 크지안흔가 생각된다。내가 처음에 잇서 部分을 取하고 全體는버린다! 는 뜻도 그런意味와 一脈을通한다。

大體로 우리들이 現代의作品에 대하야 興味를가지는 事實은 그作家가 性이라든가 心理、意識等의 特殊한方面을 探索해가는例를 除하고는 大槪 우리常識으로 비처서 뻔한 問題다。그것은 오늘날 作家나 批評家가 함께

正面하고잇는 場所와 時間의 指定된 現實이다。그러면 問題는 그作家가 指定된 어떤 現實面에 觸角을부치고 잇는가 하는事實、다음은 그部面을 어떠다가 作家가 어떤 倫理的인것을 가지고 明晰하고 消化하는가하는 體驗的인 過程이다。그것은 結局作家와 批評家가 現代에잇서 生을中心하고 赤裸裸하게 對坐하는 場面인지모른다。事實今日 作家와 批評家가 서로 誠意를다하야 對面할場面은 生이란 新裝의 舞臺일는지 모른다。하면 作品評도 作品을 中心하야 作家와 生에 關한 倫理的인 一席話를 베프는데서부터 시작하는것이 요지음새로히 登場할 그길이아닐까? 文章이나 技巧에 對話는 그런 倫理的인 努力에 推進되여 나종에 오는 所得으로 물을것이 올흐다。

金氏의『그늘미테서』에 對하야 내가 위선 不滿을느낀것은 그런 倫理的인것을가지고 이作品世界를 걸어볼때에 버슬어하나 떠우는것이 업다는것이다 이作品을 通하야 作者의呼吸이 나라나지안햇다。倫理가빠젓다。甚하게말하면 內容이뵈엿다。이런때에 批評家가 積極的인 情熱을 가지고

評을 시작할 意慾은 음부터 덜린다。이번에처 金氏의 作品을 읽으면서도 事實 部分으로는 感服을 하면서도 진작 이야길하라니까 할줄거리를찾어낼것이 업섯다。그래도 뭣을 이야기해야다! 고멧번이고 作品의 주위를 비벼차고 돌다가 結局 서뿌르게 붓잡은것이 題材問題엿다。

말하면 作者가 自己의作品을通하야 表現하고시픈것—그것이 單純한意思든、倫理觀이든、理想이든간에—이 잇는때는 勿論 作品의主題와 表現問題도잇겟지만 그보다먼저 題材를올케擇하지안코는不可能하다고생각된다。月前評中에서도 이야기한바여니와 거지의身勢를그려서 今日의 社會的共鳴을 呼訴하는것은 陳腐한일이다。그와가튼 意味에서 이번金氏가 一娼婦의身勢를그리는가운데서 하나의 健全한 쥬렌미리ー를 차즈려고한것도

緣木求魚에 가깝은 우은 謀計다。오늘날 娼婦는 거기서 무슨 健全한 人間性을 求한 主體가아니오 現實的인 存在로서는 時代性을 喪失하고잇는殘滓物이기때문이다。너무 評이 一般에 흐른것을 作者는 남어달는지모른다。勿論 나로서도 이作品事件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分析도하고 長足의具體的說明도 할수가잇섯스나 여기선 그것이 作者나 讀者나批評者自身에게나 아무所得이 업겟기에 勞而無功을 미리부터避하기로하얏다 要는 作者에게 一層 正面으로 하나의 現場에 뛰여들때에 거기서 생기는體驗的인 決算記를 請하는데不過하다。

民藝素描

山臺都監

鄭玄雄畵　李源朝文

손님을 반기고 그를 질겁게하는것— 이는 우리祖上의 아름다운 禮儀이엇나니 지나간 그날 이百姓은 遠來의使節— 貴한손님을 질겁게 하기爲하야 山臺를 모으고 춤을추엇다。

버릇은 길드릴바를 일코 낡거젓스며 山臺는 어느마을에 모앗는지 자취조차 엇건만 아직도 楊州땅에는 感懷한 雨露에자라난 흔만이남어잇다

그 옷과 탈과 그 움직임이 하직해버린 옛날에 비길수 업더라도 행여 일허지질마소서 손님을 반기는 버릇과 禮儀! 이는 우리祖上이남겨준 美德이엇고 이춤은 藝術家해도조흘 거룩한遺産이란다

―(隨筆)―

채롱 ⑤

李孝石

饗宴

一刻이千金에갑 간다는 봄날 저녁 거리의饗宴에 갓든 옛날 아가톤의 집饗宴에 모여가는기쁨보다 못할것은업다。모이는사람들이 바다시 希臘시대의哲學者들이될요는업는것이나 그러나 一旦가서 모여든面面에 接하엿슬때에는 놀라지안흘수업섯다。八十餘名의 소위 거리의 知名의士를 網羅한 大宴이엿스니 八十餘名에서 겨우 八十分之三四名박게는 顔面이 업슴이다。六十翁五十客 四十客 三十代—의 各齡代에버저고 宗敎家 敎育家 法律家 刀圭家 操觚家 등 쓰러왓스니 希臘時代의 招待客보다는 확실히 多彩인셈이다。물론 그들의智慧가 아가톤의 집에모엿든 옛사람들에게 미치는지 못미치는지 그들에게 비겨 자라는지 갈는지 못갈는지는 別問題다。그들에依해서 바다시 거리가 運轉된다고도 할수업스나 그들이 거리의 한系列의 社會의 代辯者들임은 사실이다。『知名의 士』래야 얼굴들이 별로신통한것은 업는것이요 어떠튼 이것도 저것갓고 저것도 이것가터서 아물아물 그數가 퍽도 만흔것이다。道會議員도 만커니와 醫師도퍽은만타。인사바든 몃사람을 爲面의분에게 조용히 물어볼때『그사람은 相當한知識人이요』『그사람은 그다지 조치못한사람이요』 대답하고는 座席을 군데군데 지퍼서 說明한다。—『저건 도둑이나 잇조』『저건 高利貸金業者오』『저건[illegible]이요』……

雜同散異요 吳越同舟이기는하나 잔치가 시작되엿슬때에는 泰然한食慾으로 向해서 和氣靄然하게 統一되엿고 술이돌앗슬때에는 運命의 배밑미에 탄한듯 흔드러거리며 堂안이 狼藉하얏다 十餘名의 名妓가 흥들에게 끼어서 술시중—뿐만이 아니라 이야기시중에 熱心이어다。[illegible] 點紅—이아니라 點白의 酒席을 나타낸다。사람은 항상 은 말들이 그러케도 만흘까。아가톤의 집 宴會에서는 [illegible]를 論議하고 사랑의 原理를 이야기를 하얏다。잔치 마당에서는 그것이가장 席에맛는지도모른다。나도이 날밤의 한구석의 會話를 記錄해본다。[illegible]이아니고 [illegible]이라면 결국 현대인은 그만콤古代의 [illegible]보다 타락햇다는 [illegible] 明白이요 내허물은 아닌것이다。

「……요새 까다로운 [illegible] 신문사 일이바빠 신모양이이죠。」

「바빠서 안가는줄아나。」

「그럼 아직두 그걸 노여하구 게시나요。내 꼭절을 애기한다 하면서 못햇군요。오늘밤에는기어히 애기해드리조。」

「밥먹으웨。뻔히아는노릇을 이제 새사람스럽게 발명할테야。」

「세상소문이란 대개 사실과는 다르거든요。말이란 량편말다들어야지 외편말만 가지군 아나요。」

「암만 그래봐두 고치든나」

「그날밤 가며 우리집까지오셧든걸 아시죠。얘기는 거서부터 시작되는데 선생이가신뒤 군여 작구 쉬구만가시겟다는군요。손님대접이라 하는수업시 여불을 펴주구 전 어머니방에가 잣죠—그랫에요」

「그군의말은 다른거든」

「그건 이러죠。—아츰에이러나 방엘갓슬때 노여노여하면서 겨드랑을 불주겟나요。」

「흥 그걸루 설명이다됏다구 생각하나」

「그럼은요。그이상 아무것두업는걸 어떠캐요。—그뒤 다시 시골서왓슬때엔 아츰부터 허며 우리고와선 복구시피와다는구면요。문제는 그날밤인데 여기저기 불리면서 놋도록놀다가 조흔사람피가려 좋아가서 자리에 누엇죠……」

「요것봐 새롱새롱 말 막한다」

「이러케된바에야 마하지안후 어떠케해요。그래두 밋지안흐시면서。—대문거는걸」

평작이엇는것이어 물살이어졋소。[illegible] 와간 물소리와물소리가 나드니 주추아래에서 보든 욕소리가 바로 그이의 목소리겟나요 [illegible] 자려면누엇구 하는수잇서야조 [illegible] 사정[illegible]면서 몸어 고맙므니 가라구만 햇겟죠 [illegible] 거어코 마두에 뛰여올라 [illegible]라는군요 그래서 결국 터지구말엇죠 방안의 군이 어불[illegible]치구이러나드니 고래가통 소리루 누구야하구고함쳣든거죠 그한마디에 빠기별안간 조용해지구—그뿐이엇서요 생각하면 미안두하구 끄럽기두하구」

「천연스럽게 말하는폭이 영운이가 요물인가。」

「자 이젠 오렙다 좋어주세요 ……엇저나 사람들이 벌서어는새 이러케들 허저네。이걸루 우리 집에 가시지안켓서요 오래간만에」

「……글세 가볼까 요것봐 못지워서 사내란는게 다 만만하다뭣인가。—나두 실상사내면서두 사내맘모르겟다。」(完)

新刊評

李熙昇近著 歷代朝鮮文學精華

李克魯

文化人으로서 母語의文學에常識을 가지어야 될것은 긴말을할必要도 업다。이제 우리는 一般으로 보아서 文學常識이 不足한것은 事實이다。이것은 여러가지 原因이 잇겟지마는 그中에 큰原因의 하나는 그常識을 어들만한 適當한 책이업는것이다。제아무리 聰明한 사람이라도 바른指導를 밧지못하면 흔히 그른길로 들기가 쉽고 또 마춤내 바른길을 차자 갈지라도 얼마나 헛된努力과 긴歲月을 虛費한뒤에 비로소 제目的한바에達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일에 指導者를 要求하게된다。그런때 이제朝鮮文學硏究의 指導者는 곳 歷代朝鮮文學精華가 될것이다。

이제 讀後感을 論하게된 歷代朝鮮文學精華는 그 이름과가티 朝鮮文學의 여러百年동안에 洗鍊되어 온 가장優秀한 材料를 採用한精華이다。만흔 물건가운데 몃個를 가리어 낸다는것은 如干한 鑑別力이 아니면 아니되는일이다。글을 가리어뽑는데 잇서서는 더욱 그러하다。타고난 素質 만흔讀書의 經驗이 아니면 不可能한일이다。이제 말하는 이文學精華는 主로 專門學校의 朝鮮文學敎科書로서 編纂하면서도 一般 讀書家의 便宜도 充分히考慮하엿다。過去의 朝鮮文學作品中에 小說 時調 歌謠 國文 翻譯物等 가장 文學的價値가 잇는것을 網羅한것만큼 圓滿한 綜合的인것이 特色이다。그다음에는 亂麻와 가티 어지러운綴字를 昭和八年 十月에 頒布된 朝鮮語學會의 制定인『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綴法을 조차서 整理한것이 책으로서 價値가 잇는것이다。敎材排置에는 時代的으로 逆溯하야 近世作品으로부터 漸次 中古 上古에 及하야 讀者의 古典讀解力의 漸進啓導主義를 取한것이나 또 敎材中에 難解의 語句를 必要하다고 認하는 境遇에는 註釋을 各章末에 施한것은 確實히 著者 李熙昇先生의 多年 實際敎育者의 經驗을 엿볼수잇다。採用한 材料의 原典을 어느 한 가지에만 專依하지 아니하고 될수잇는 대로 數三 乃至 十數種을 相互對較하야 誤謬를 是正하야 그完璧을 期한것은 著者의 科學者의 態度와 學者的 良心으로 努力한것이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끗트로 한 말씀 할것은 이책의 깨끗한 印刷와 아름다운 製本은 讀者의 精神을 爽快하게 하야 讀書의 能率을 돕는 것도 책으로서는 重要한 한가지 特色이다。

定價一圓二十錢 京城府光化門通光化門빌딩 人文社出版振替京城二八六三三番

新刊紹介

▲한글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佛敎時報 第二十四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五の三七 佛敎時報社 振替京城二三八四三番 定價一部十錢

▲慶北老會敎會報 五月號 發行所 大邱府南山町五 慶北老會敎會報社 振替釜山八七八七番

▲平壤勉勵會報 第四十三號 發行所 平壤府昌里八五 馬布記念館 平壤勉勵會報社 振替京城二六七九四番 定價一部五錢

▲朝鮮監理會報 第七十七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三一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西行日記

―三墓와雙楹塚― (2)

林學洙

아홉시에 숙사를떠나 도청에 들럿다가 바로 博物館으로 갓다。그는 牡丹峰中腹에 잇서位置도 조커니와 建物이 히고 아담하다。陳列品은 대개 石器時代의 遺物에서 비롯하야 金石倂用時代 銅鐵器時代의 순서로 配列되여잇스나 그중 나에게 想像의날개를 펄치게한것은 깨여진 돌독기와 車輿의 破片이엿다。어슷어슷 모닥불 아른지 二千年前의 生活과 感情을엿보며 두눈을 뜨겁게한다。이는 그素朴하고도 端雅한 線、特히 鐵斧의 자루의 魅力이다。大抵옛날의 工藝品에잇서 거기 彫刻되고 그리워진모양이나 彩色等 細工보다도 그線이 그들의 理想과 感情을 가장端的으로 나타내엿다고 나는 항상 생각함을마지안는다。이박게 특히 눈에띄는것은 白銅鏡과 鬼瓦와 人物畵의漆器이다。王肝墓 彩篋塚에서 發掘하엿다는 彩文漆篋 彩船漆盤은 속은 대로컵고 우는 黑漆을하야 琉璃처럼 반질한바탕에 흑은 彩色으로 流水를 그려놋고 흑은 옛날의 孝子烈女 聖者의 人物像을 놀려그린것으로 그形態의 미침과 그색의 고요하고 유려하고 纖細함이 질짓 稀世의보배다。

K館長의 말에의하면 수년전 米國의 某博物館으로부터 이것을 주리하나를 十萬弗에팔라는 交涉이잇섯스나 拒絶한것이라고。三十萬金이라도 投資하는 그들의 藝術을愛護하는 意氣가 부럽거니와 여기 陳列品中 이地方과는 距離가먼 個人의所有에 屬한자가 만흐니 近世의 우리 祖上이얼마나 無知햇는가를 나는 잠간 恨하지안흘수가 업섯다。그러나 이와가튼 遺物이 樂浪의 古墳에서는 發掘되엿스나 支那에서는 發掘된배업고 또한그人物畵는 東洋最古의 것이라하니 오날 우리들에게 비록 아모 자랑할만한것이 업다하드라도 옛어른의

거리는 大同江畔에 雜草를 헤치고 사슴을쫏든 石斧가 文物의 進步와함께 銅劍으로 변하고 獵夫의車輿 아침이슬을 깨치며 달렷슬그때 이江岸은 얼마나 쓸쓸한 村落이엇슬가?그러면서도 그얼마나 偉大한 文化의 發祥地엿는가?—저金銅製의 馬面은 銀안장 푸른 石帶에 당홍채직을 노피드러 [illegible] 달리든壯士 얼마나 華奢하고 씩씩하얏는가를 생각케한다。마즈막으로 다리를옮기면 [illegible] 무엇인가 말하는듯하다 [illegible] 現代人은 科學이 [illegible]

[illegible]의 물결을 보앗다。하나는 활 나무토막 하나로 벽을토서 모다 實物을 가져다가 만드러지 이것을 나와서 [illegible]하야준 [illegible] 모파 作別하고 다시 乙號로 올라 [illegible]을 즐기다가 나러오는길에서 [illegible]氏를맛나 [illegible]에서 어둡지녁을 맛치고 다섯시十五分 四五學生의 전송하야줌을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平壤驛에 올랏다。

午前中을 博物館에서 보내고 午後에는 [illegible]에서 보내고 [illegible]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

愛憎道 (八)

鄭飛石 作　崔根培 畵

득보는 어제 말한대로 홍매를 병원에 보내려고 돈을 취해가지고와 기다리든 참이엇다。홍매는 바짝 홍분햇든김에 갑재기 득보를 맛나니 서름이 북바쳣다。

토방돌을 집고 힘을주어 용주어올라서려는데 다리가 휘부러지는듯 휘며 몸이모로 쏠린다。서슴에 중심을 일허버린몸은 제 무게에 지처 여프로 나가 자빠라진다。순간

『앗!』

『어서 이리와 누오시지요』

하든 그릴의선이!

인제는 이저버리자해도 좀체 이처지지도 안는다。더구나 갈보와 주고밧든 그회화!

『시루 뭉까!—끈나 온다오!』

홍매는 또 새삼스럽게 몀시 갈를느낀다。

『그럼 바람 쐬지말우!』 난가무다!』

득보는 섬쩍 일어선다。

『왜 좀더 안젓다 가구래』

『또 오디』

『아가—』

미리깔린것은 어쩌든 깐놈이다。홍매가 정신을 차리고 득보가 손을댈때 깐놈의 머리에선 벌서 선혈이 뚝뚝 흘려내렷다。

『아가 아가 아가—엉어!』

깐놈은 대돌에 머리를 짓띄여 머리가 깨웟다。깐놈은 섯자 명수리가 울지도못한다。

『꿀떡!꿀떡!얼른 꿀떡을 해오라구!』

득보는 깐놈을 이른켜안고 손으로 상처에 피를막으며 웬친다。그제사 홍매도 정신을가꾸긴햇스나 어하중에 어쩔줄을 모르고 안달북달이다。

상처에 밀가루 꿀떡을 해부치고 나도 깐놈은 울기를 그치지안는다。홍매의 치마와 저구리엔 군데군데 피다。

(모두 깐놈의괴로구나)하니 또 서럽다。깐놈이가

『엄마—엉엉—엄마』

할적마다 무디무디 울음이 소꾸친다。

『인젠 한참 재우!자야 아픈걸 낫지』

득보는 멍멍이 안젓다가 불쑥 참견이다。

그말에 홍매는 득보가 안젓는것을 깨닷고 새삼스러 말문든해진다。

허나 깐놈이가 상을 찌푸릴때마다 맘은 아프다。내 불찰로 깐놈머리를 까구나하니 문득 종섭의 얼골이 떠오른다。빗물 돼지비게가튼 우슴을 우스면서

득보가 가버리자 방안은 유별이조용하다。

홍매는 깐놈을 끼고눕는다。자장가를 유행가스조로 부르며 도닥도닥 두들려준다。

깐놈은 호지—잠이 들엇다。근심은 한결 덜린다。허나한잠 자고나자 깐놈은 전신이 불덩어리가 되엿다。

『머리 아프니?』

『응』

『어디 다른데 안아프니?』

혹시 딴데 다친데 업나 근심이다。

『추어!』

『추어?』

『응』

하니불을 하나더 더퍼주고 꼭꼭 감싼다。

그래도 깐놈은 부들부들 떤다。홍매는 방과 깐놈을 끼고 눕는다。

『밥 좀 먹자구나!』

『실허!』

깐놈은 냉수를 한사발 벌떡벌떡 드리킨다 머리깨진 때문이러니 하면서도 홍매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깐놈아!』

『응?』

『아빠 보구푸잔니?』

홍매는 문득 아까깐놈이가 아비업는애라고 동무들에게 매마진 생각이낫다。

『보구파』

홍매는 눈물이욱히 감고잇다가

『네 압반 죽엇단다』

『실라인?』

깐놈은 밥버둥을 친다。

百日咳

지금부터 가류향기

百日咳의초기는 흔이 보통감기의증세와갈음으로 등한시하시기쉬우나 이병은 무서운여병—기관지염 폐염 폐병등으로 변하기쉬운병임으로 하로바삐 미전에 지밋신으로 곳처주십시요

지밋신은 단하나의 특효약으로써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병에걸닌때에는 심한고통과 발작을계이게하여서 경과를빨으게함으로 여병의위험이 없이 속히낫게하여주는약입니다

더구나 조금도 극약성분과마취성분이 석겨잇지않음으로 안심하고 사용할수 잇는약이며 거침에 잘듣을뿐만아니라 맛이좋음으로 약을실허하는애라도 잘 먹게되는만큼 더욱有効한약입니다

一圓·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잇습니다

チミツシン 지밋신

喘息 エフドロ·チミツシン

喘息에는 심한고통을주는 천식이심하게 되는시절이오나 本劑로치료를하시면 그 빵게심하든 그르렁과발작이개이고 근본적으로낫게하야 잘주무시게하여줍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氣管支·肺·肋膜 グアヤコ·チミツシン

조선은 기후관계로 밤은기침 담 기침의환자가많으오나 本劑는근본적치료약으로 많은稱讚을받고잇사오니 本劑로써근치식혀주십시요

一五〇瓦…一圓八十錢

東京·大阪 田邊商店

TY-K-75

五月一日부터三日까지 (晝夜二回) 晝一時 夜七時卅分開演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特別名畫週間)
◇佛蘭西 네바루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名篇 禁男의家 監督 자크 드바롱 主演 베티 다니엘 다뷰
◇佛아메리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爭活劇 熱砂の果て 監督 자크 트라크 主演 자세부 에이 자니 누그라 스팡 助演 아레산드로 누니 부ー사ー트
次週—벤가ル의虎 [illegible]
桃花劇場 電[illegible]三三三

日活 黃金座
各社ニュース
日活·東京要塞
巴里で逢った彼奴
國際ジャズ界の精鋭 ハルピンショウ
自由御影攝影舞踊
11·00 2·45 6·40 / 11·10 2·55 7·00 / 12·30 4·15 8·20 / 2·00 5·45 10·00
五月六日マデ 五月三日ヨリ
特別興行キ付＝70錢一 午前中入場者50錢均一

若劇
四月三十日ヨリ五日間
大皇軍正義の突擊 朝日ニュース
ギャング爆擊 大每ニュース
世界の動き 史年十三[illegible]
さぐちみの戀
主演ンエイラブオ·ジーヨジ作OKR(1) ンリデマーラデレ·スシンラフ·作アビムロコ(2) 主演ルロヤキ
一回 6·30 7·00 8·10 8·40 / 二回 2·35 3·50 4·15 4·45 / 三回 11·30 12·40 1·10

讀賣ニュース
コロムビア特作大作日活 テムツマイコ主演 曉の闇の電光
水島道太郎 琴糸路主演 新婚玉手箱
松山宗三郎 琴糸路主演 伊達姿女一代
二日ヨリ五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毎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二·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一〇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五月二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巨篇豪華週間 毎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 二回續映 三回七時三十分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 인다ー나金星社特作品 原作 제니막크파슨氏 監督 세실·B·데밀氏 宗敎名篇 王中王 主演 에취비ー와ー나氏 도로시ー카ー밍 一名킹오브킹스
松竹京都超特作全發聲 脚色 冬島泰三氏 監督 犬塚稔氏 時代名篇 土屋主稅 (前篇) 共演 林長二郞 高田浩吉 嵐璃三郞 上山草人 中村正三郞 北龍子
東日大每ニュース
第一劇場

産業

本社主催 朝鮮特産品展覽會

朝鮮特産品案內

牛皮

◀生産高
生産數量 [illegible]斤
生産金額 [illegible]圓
◀出廻期=通年
◀主要販路=朝鮮內各地、內地
◀取引方法=現物은 現金取引을 主로하는데 때때로 委託販賣하는일도잇다
◀製造方法=生皮를鹽漬(一枚에對하야二斤가량)하야 天日에 말린다 鹽漬期間 春秋는一週間 夏期는三日間 冬期는二週間가량이다 原料의種類 同産地=朝鮮産品이다

特殊作物

◀主要販路=朝鮮內各地及內地
◀取引方法=現品에對하야現金取引을主로한다 組合對生産者間에잇서서는現品을組合에서 買取하는가 或은委託을바다 組合은 이를仲買人 或은都賣商에게 代金引換又는 委託等의 方法에依하야 賣渡한다

鷄卵

◀生産高
生産數量 二二六、八七四千 顆
生産金額 五、三二七、九七八圓
◀出廻期=自二月至六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
◀取引方法=現品에對하야는 現金取引을主로한다 都賣에對하야서는 委託販賣를行하는일이 만코 都賣의手數料는 八分을 普通으로한다

朝鮮人參

◀生産高
收穫數量 三〇四、一三〇斤
收穫金額 四、一八八、四一九圓
◀出廻期=自七月下旬 至翌年一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臺灣、滿洲、南洋、中國
◀取引方法=現品에對하야相對賣買로現金拂을原則으로 注文은 代金引換或은前金으로한다
◀製造方法=五年根을蒸에시처서 外皮를벗긴後 말린다
◀原料의種類同産地=朝鮮人蔘水蔘

製材

◀生産高
製造戶數 八四工場
生産金額 一一、六五二、八〇一圓

◀出廻期=通年
◀主要販路=朝鮮內各地
◀取引方法=現品은 現金取引을 主로하나 一個月乃至二個月의 延決濟도잇다
◀原料의 種類同産地=北鮮地方을生産地로한다

木炭

◀生産高
生産數量 [illegible]貫
生産金額 [illegible]圓
◀出廻期=自十月至翌年三月
◀主要販路=朝鮮內及內地
◀取引方法=現品에對하야 現金取引을 主로한다 問屋에 對하야서는 委託販賣로하고 代金은 一個月計算이만타
◀製造方法=原木을 適當한 기리로잘리서 窯內에 너코 點火한後 焚口를 閉塞하고 少孔만을 열어두어 全部 燃燒된다음에 그小孔을 막어 두엇다가 불이꺼진다음에 끄내가지고 섞어 너허 市場에서 販賣한다
◀原料의 種類同産地=朝鮮産檜櫟等

漢藥草材

◀生産高
生産數量 六四二、〇五一貫
生産金額 五三九、〇五三圓
◀出廻期=自十一月至翌年一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及 內地
◀取引方法=代金引換或은 荷爲賣付로한다 每年舊十一月부터 十二月에至하는 二個月間에亘하야 大邱藥令市가開市되는동안에 大量取引이行한다
◀製造方法=採取한藥草를 日光에말린다
◀原料의種類同産地=朝鮮內各地

栗、松實及其他

◀生産高
生産數量 八九、三五二石
生産金額 一、六八三、八二九圓
◀出廻期=栗九月-十二月
松實自九月 至翌年一月
主要販路 栗 朝鮮內及內地
◀取引方法=栗郡賣에 對하야서는大槪委託을 主로代金은 販賣와同時에 送金을하고 其他은代金引換에 依한다
松實-現品에依하야代金引換을 主로한다
◀原料의種類同産地=松實 京畿 江原、咸南

石炭

◀生産高
採掘數量 一、九九九、一五三 瓲
採掘金額 一一、九二五、一四九圓
◀出廻期=自十月至三月
◀主要販路=朝鮮內各地及內地
◀取引方法=現金取引도잇스나大槪는 一個月延決濟로한다
◀原料의種類同産地=生産地 平安南道、咸鏡北道

出品目錄一覽 ⑤

江原道

品名	產地	出品者氏名
蛇紋石花瓶	江原道外金剛溫井里	鈴木鍜太郞
同 風鎭	同	同
同 硯	同	同
大理石花瓶	同	金剛山繁榮會
木魚	同	同
단장	同	同
萩製椅子	春川	春川郡農會
同 卓子	同	同
同果物籠	同	同
木炭	同	春川郡木炭組合
五倍子	同	春川郡農會
楮	同	春川郡紙業組合
朝鮮紙	同	同
蜜蠟	同	春川郡農會
牛脂	同	同
羽二重	金化	金化郡機業組合
絹布	同	同
夏服地	同	同
綿布	橫城	橫城郡農會
大麻座蒲團地	淮陽	淮陽郡麻布生産組合
大麻枕카바	同	同
緞通	同	同
초잇슈머-큰	高城	長箭興產株式會社
鰮搾粕	通川	田夏當鰮搾粕工場
北寄貝	同	李炳燮
雲丹瓶詰	江原道	江原道水産試驗場
주인난비게鑵詰	同	同
벗바-사-진鑵詰	同	同
陳燻袋	同	同
[illegible]鑵詰	通川	和泉 孫吉
[illegible]	江陵	[illegible]
[illegible]干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同
[illegible]	同	同
藥草[illegible]	春川	
		江原道[illegible]株式會社
同 白伏苓	同	同
同 白芍藥	同	同
同 黃芪	同	同
同 五味子	同	同
同 白朮	同	同
蜂蜜	同	福田 享國
朝鮮松實	同	鄭斗錫

出品種類數 四十二種

咸鏡南道

品名	產地	出品者氏名
乾明太魚	元山	東海水産株式會社
生牡蠣	同	權允浩
牡蠣鑵詰	同	同
[illegible]	同	徐鎭萬
元山土酒	同	北鮮酒造株式會社
元山特酒	同	同
馬鈴薯澱粉	長津	長津郡農會
林檎酒	元山	尹應琥
구-스베리酒	同	同
林檎酢	同	同
元號양말	元山	朴容大
七〇〇番양말	同	同
루비帶止	咸興	谷川萬石社
넥타이핀	同	同
카후스보단	同	同
도마도사-진	新浦	川南工業株式會社
味付鰯	同	同
林檎	咸興	末廣菓子舖
양말	元山	
[illegible]燕麥		咸南工業株式會社
澱粉	新興	新興郡農會
[illegible]粉	長津	長津郡農會
淡靑大豆	端川	端川郡農會
玉石煙草入	同	端川玉石細工組合
毛蟹鑵詰	北靑	昭和水産工業株式會社
春紗	新興	新興産業組合
麻布	同	同
蜂蜜	安邊	安邊郡農會
窒素石鹼	興南	窒素肥料販賣株式會社
窒素라이트成型品	永興	同
窒素라이트板	本宮	同
調味料旭味	同	同
苹果	咸興	咸興産業組合
林檎酒	同	同
林檎	同	同

咸鏡北道

品名	產地	出品者氏名
라일	生氣嶺	稻垣多四郞
耐火煉瓦	同	同
들죽	白頭山	同
들죽飴	同	同
大理石名札	城津	黑田直三郞
同 灰落	同	同
同 風鎭	同	同
石鎭	同	李秉洙
一輪揷	會寧	崔窯元
硯	鏡城	朱秉璉
同 松揚	同	朱梅珍
同 鐵揚	同	朱貫一
同 梅揚	同	南蚕成
麻布	明川	玄 松
大豆(各種)	間島	延吉縣農事合作社

出品種類數 十六種

牛增産企圖코 全鮮的 共濟制度實施

二十個年卅萬圓計上

朝鮮牛增産에 對하여서는 始政以來 지금까지 農家一戶當一頭飼育을 目標로 努力하여왓스나 如意한成績을 내지못하엿슬뿐만아니라 最近의 內外情勢에 鑑하야 有畜農業의 徹底와 主要食肉資源上 增殖充實이 必要함을 認定하고 昭和十三年부터 二十年間 三十三萬七千圓을計上하고 二百五十萬頭를 增殖할計畫이잇다함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 그計畫을遂行하기爲하야 共濟及種牛施設의擴充、取引機構의 改善等을 着着進行中인데 總督府에서는 從來各道別의 積立金에依한 共濟制度를 不充分하다하야 保險制度를 加味한 全朝鮮的共濟制度가 實施되게되엇는데 畜牛共濟實施의 現狀을 各道로부터의 報告에 依하야보면 共濟道加入頭數는 實로 百十餘萬頭即 全畜牛의 約七割을 占하고잇는데 其內容을 볼때에는 共濟金의 交付頭數는 實際의斃死牛의 六割七分에不過하는 實狀인데 其原因은 規定에依한 年齡에 不足한것도잇스나 大槪는 規定의 取扱手續이 農民에게 徹底하지못하므로 或은 斃死의申告를 하지안는다던가 或은 共濟料를 滯納하는 不注意에依하야 不知不識間에 規定에 抵觸됨에 依한것도 적지안흔모양이라하는데 畜牛共濟實施의 要領을 略記하면 其主體는 府郡島農會가되여 그區內에잇는 農會員이 飼育하는 生後六個月以上의 畜牛에對하야 一年에 三十五錢을 標準으로 頭數에 比例하야 賦課케한다 그리고 飼畜申告書하고 共濟料를 賦課한畜牛가 一段斃死하거나 또는 傳染病豫防令에 依하야 屠殺處分을 바더슬때는 꼬分區에 申請하는同時에 獸醫師의 檢案書又는 警察官吏의 現認證書를 添附하야 共濟金交付申請書를 遲滯업시 農會에提出하면 生後六個月以上에는 十八圓 二歲以上은 三十五圓 五歲以上은 五十六圓의比例로 共濟金을 交付하는것이다 그런데 但 其交付金을 바든者는 반듯이 代牛를 購入飼育할義務를 지게한것은 其實施規定이 徹底한點이라 하겟다

藥草六種指定코 不日規則公布・實施

咸南

【咸南支社發】咸南道에서는 이번 새로 道內各地에서 多生하는 藥草가운데 芍藥 當歸 大黃等 大種을 特産品類取締規則 第一條에 編入하야 그區域파 指定販賣業者를 指定하기로되야立案中에잇는데 不日實施될것이다 指定區域은 다음과갓다

長津 豊山 三水 甲山 新興 安邊 德源 文川 高原等郡一圓

軍民一如

砲擊距離의 레코-드

今日까지의戰爭의記錄에는 獨逸軍이西部戰線크레피-森林에서百二十八키로나되는 파리、市街를砲擊한것이 最長距離記錄입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擧國的家庭報國 먼저厨房의虛費를省略합시다!

아주經濟

味の素의 效力은 다른어느 調味料보다도 優秀해서 極히 小量으로라도 效力이나타나는故로 大端히 經濟됩니다 普通一人分이〇・三瓦쯤이標準입니다 그리고 普通의 飮食物을 上等品만치 맛잇게해서 二重으로 經濟가됩니다

時間을節約

또 味の素는 冷水나湯水에 풀려서 당장에 맛잇게되고 오래 걸리지안흐므로 時間도 아주經濟됩니다. 今日은 厨房에서 어물어물 時間을 오래보낼 時期가 아닙니다 味の素로 헛된時間을 節約합시다

用途가廣함

和、洋、支어느料理에도쓸수잇슴은 또한 非常히便利한點입니다 單한가지 味の素만으로 될수잇다는것은 調味의 統制로도됩니다 맛나게하려고 여러가지 調味料를써서 受苦하실 必要가 조금도업습니다

來客의時

손님을 대접할적에 사온飮食만을 만히 느러노아서는 때가때라 甚히 不經濟한일입니다 婦人께서애써만드신 料理에味の素를 처주십시요 별드시 맛잇게되여 손님은大滿足 그리고 참답게질거운 饗應이될것입니다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滿浦鎭對岸輯安에 共匪出沒로不安

身分證明업시는旅行도困難

移住民들戰戰兢兢

【滿浦鎭】 평북만포진대안즙안현(輯安縣)지방에 지난번 토비가 그지방소령철도공사장을 습격한 이래 그지방부근에 잠복하여잇서 민심이 자못 흉흉한가운데 지난이십칠일저녁다섯시경 동현제이구태평거우(太平溝)에 약일백칠, 팔십명의 흉군이 나타나서 그곳경찰분주소를 습격하야 만주인경찰편수명을 살상시키고 촌상(村上)지도반이하수명을납치하여가지고 종적을 감추엇다하며 그의일인이 신경안에는 동현제삼부에 약오륙십명의 흉군이 나타나 부근에서 약탈한사건도 잇다한다 이로말미아마 동지방이주동포들은 전전긍긍하며 아프로 농웅이무성할을따라 그들의활동은 더욱심하지아니할가우려된다하며 일방그곳경찰의취체는 여간엄하지아니하야 그곳거주하는동포의 여행자들로서 신분증명서가업는자는 대단한불편을당한다는데 특별한사정이어지는 당분간그지방여행은 아니하는것이 조타하며 부득이한사정으로 여행할때는 신분증명할만한서류를 가지이필요하다고한다

共匪、討伐隊衝突 約四時間을交火

討伐隊側被害도不少

【滿浦鎭】 대안 즙안현(輯安縣)일대의 공비의 활동은 나날이 심하야 도처에 피해가적지안타 함은 별항과가거니와 지난이일 오전한시경 공비일단이 즙안현성을 습격한다는정보를밧고 만주국 토벌대는 그들이오는길목 인마석구방면으로 향하려고 성외서 산길로간동 마침현성을 향하여오든 흉군일단을맛나 약네시간 교전에 총소래는 만포진까지들리고 토벌대측은 부상삼명 납치일명을 내엿다하며 만포경찰서에서는 특별경계로 대안과 교통을 차단하엿다 듯는말에 의하면 공비일단이 아직 성부근에 잠복하야 기회를보는듯하야 주민은 전전 긍긍한가운대 교통차단으로 조선내로를 어오지도못하고 어쩔줄을 모른다하며 이즘 성부근주민들은 밤이면 성내로 몰려들어 자는등 농번기를 압두고 동포의 사정이딱하다고한다

間崎氏歸來後에 具體案을作成

鎭南浦防氷堤築造案有望

【鎭南浦】 동기유빙(流氷)이심한 진남포항에 방빙제축조(防氷堤築造)의 중대사명을가지고 동경에출장중이던 간기(間崎)씨는 오는십일경에 귀남할예정이라는바 최근진남포상공회의소 석천이사(石川理事)에게 도착된서신을 보건대 방빙제문제에대하야 간기씨는 만흔흥미와 자신을 어덧다고하며 특히 수로부장(水路部長)의 호의로 명치이십삼년의 측량도를어더 대동강구부근의 모양을 등사하엿는데 사십구년전과 현재의 해도는 별로 변함이업서서 방빙제축조에 아무 지장이업을것을 확신한다고한다 진남포 상공회의소와 부에서는 간기씨가 도라오는대로 즉시 항만좌담회(港灣座談會)를 개최하고 씨의 상세한 보고를 듯고 방빙제축조에대하여 구체안을 작성할모양이므로 그결과는 크게기대된다

巡査殺害犯人 豫審終結公判에

【平南支社發】 작년구월십구일오전영시십오분경 가을비가 보슬보슬나리는 추석날(秋夕日)새벽에 평양부내 죽원정(竹園町)일번지 저나인요정 만승루(萬昇樓)에 침입하여 강도에비행을 하고잇든중 평양서 역전파출소(驛前派出所)조명순(趙明俊)순사에게 추적되여 다라나든중 약송정(若松町)일번지 오길자(吳吉次)의집압 마당뒤로에드러가 어쩔수업시 잡히게되는순간 가지고잇든 예리한일본도로 조순사를 찔러 적사케하고 다시조순사를 응원하고저달려왓든 평양의전생도(平醫專生)산촌철부(山村哲夫)를 조순사의패검을빼아사가지고 찌어 치료이개월이상을 요하는 중상을가햇고 다시급보를 듯고 달려어온 평양서 황목행일(荒木幸一)순사부장에게까지 전치삼주간의중상을 가햇스나 급기야 황목순사부장에게 겨우으로마저중상을당하면서 체포된 전률할사건인바 강계출생(江界出生)이백현(李白玄)(二七)과 공범 강서출생(江西出生)김성옥(金成玉)(二五)의 양명은 평양지방법원고도(高等)예심판사의 손에서 그동안심리중이던바 예심이종결되면서 이일오후 유죄로결정되여 주범이백현은 주거침입(住居侵入) 절도(窃盜)강도(强盜) 살인(殺人) 살인미수(殺人未遂)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로 공범김성옥은 주거침입, 절도, 강도예비(强盜豫備)죄로 동법원공판에 회부되여 최후의단죄를 기다리게되엿다

그런데 이백현은 소화십년구월 살인미수죄로 징역십오년 김성옥은 소화오년이월에 강도상인죄로 징역칠년에처형되여 평양형무소에서 복역중은전(恩典)으로 출옥된 경험을가진자들로 옥중에서 가까운사이가되 출옥후보조(步調)를 일치하기로 약속제일착수사업에 실패한것이다

井州軍事講演

【井邑】 지난사월삼십일 오후팔시 정읍심상고등소학교강당에서 정주읍주최로 총후보국강조주간(銃後報國强調週間)의 한사업으로서 보병제칠십구련대(步兵第七九聯隊) 북지출정(北支出征)한 보병소좌(步兵少佐) 삼산송차랑(森山松次郎)씨를 초청하야 군사강연(軍事講演)을 하엿다는데 청중이무려수천에달하는 성황을 이루엇다한다

貯金勸誘週間收穫

一萬七千餘圓!

【大田】 지난 사월이십육일부터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강조주간(國民精神總動員銃後報國强調週間)에 대전우편국(大田郵便局)에서는저금관념(貯金觀念)을 향상시키기위하야 국원총동원한결과 주간중일만칠천여원의가입액수의 놀라운숫자를 보엿다고한다

從里驛中心으로 交通網計畫

【[illegible]】 경북 의성군금성면탑리(中央線五十區)는 철도공사도에 정대로 지척되여오는 구월상순경에는 준공을 고하게되에따라 명춘에는 철도국에서 영업을개시하리라는데 금성면에서는 지방번영상 오래전부터 도로망의 출을 계획하야오는바 금번도에 드러서는 탑리와 서(徐)하고 실면의일보(一步)를 드되게 되엿는대 이미 탑리도리원간의 도로(幅五米五分)는 지난이월부터 착공하야 곳개통을 보게되엿고 탑리가음간의 도로도 착수하려하며 산곡(含谷)군위(軍威)방면의 도로도 불원착수할예정이라하는데 도리원방면의도로가 개통하는날에는 안계(安溪)방면의 물산이 전부 탑리역에서 집산(集散)될것이므로 금성면에서는 탑리역을 중심으로 큰시가지를만들고저 방금전력중이라고 엿다

吉山勞組를改造 貨物作業組合으로

【長項】 충남서천군 서천면사산리 길산포(吉山浦)에 잇는 길산노동조합은 대정구년에 조직된이래 이십여년간 노동자의 지위향상을위하야 다대한 공적을 싸어가지고 번에 하주(荷主)측의 가입을보는동시에 금후 노자협조하에일층무역기관이 하고자 지난삼십일 제이십일회 정기총회석상에서 정관개정, 역원개정을한바 명칭은 길산화물작업조합(吉山貨物作業組合)이라고하엿스며 [illegible] 역원은다음과가티 투거되엿다한다

▲組合長 [illegible] ▲評議員 [illegible] ▲理事 孔五[illegible]

濃霧로汽船坐礁

乘客等四十一名은多幸救助

統營巨濟島近海에서

【統營支社發】 지난삼일오전다섯시경 경남통영군거제도(統營郡巨濟島)부근바다에서 부산부대교통(大橋通)에잇는조선 기선회사(朝鮮汽船會社)소유 부산 여수간의 정기객선 [illegible]이 농무로 좌초하야 서다다이 중한상태에 빠져 승객급선원등 사십일명의 생사가검정되던바 때마침 부산부대교통(大橋通)조선상선회사(朝鮮商船會社)소유 [illegible]이 그부근을 통항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선장이경명(李景銘)씨이하 선원십오명이 전력을다하야전기 조난승객사십일명을무조하는동시우편물을바다서부산으로 도라와다고한다 그래서 전기회사에서는 곳구조선을 출동시켜 활동한결과 동열시경에 근근 파손된배미를중선하야 부산으로 회항하야 와다는데 손해는 약일천여원에 달할모양이라고한다

順安에覆面强盜

食刀로威脅, 現金奪取逃走

【順川】 지난일일오전세시경 평남순안면 [illegible]의집에 복면한괴한일명이 침입하여 식칼(食刀)로위협하야 현금 [illegible]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 급보를받고 순안주재소에서는 범인을 수색중이라고한다

安義小學校移築

八月中旬竣工

【安義】 경남안의(安義)상소학교(安義尋常小學校)의이전 신축공사는 총공비 이만사천오백원에 거창읍내 [illegible]조와 수의계약을 인정하여 방금 공사중인바 준공은오는팔월 중순경이라고한다

北支와滿洲를舞臺로 朝鮮物產進出活潑

鎭南浦의貿易飛躍的激增

【鎭南浦】 동기삼개월동안이나선박의 출입이 일체두절되엿던진남포항은 해빙파아울러 선박의 출입이 일약격증하여 지난사월중 대외대내의 무역액은 실로 경이적신기록을지여 맥게방면을 놀래게한다 즉 대외무역은 수출일십삼만구천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하여 사십팔만구천원이 증가되엿고 수입은 팔십삼만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하여 십육만이천원이 증가되여 한게 백육십이만구천원으로 작년동기에비하여 육십이만팔천원이 격증되엿스며 부내무역은 이출이 일천오백구십만칠천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하여 사백육십팔만칠천원 이입은 오백삼십사만사천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하야 사십일만오천원이 증가되엿다 이는 북지와 만주방면으로 소맥분, 쌀, 정조, 순면포등이 대량으로 수출되엿스며 수입품으로는 석회, 두박, 광산용기계등이 주로되엿고 이출로는 쌀, 함금조동(含金粗銅)석탄, 양지등이며 이입은 비료, 목재기타잡품이라는바 사월중의무역이 그러듯격증한만계로 겨울동안 부진상태에잇든 진남포항은 일홍을기를 떠고잇는동시에 오월중에 무역액도주목된다고한다

鳳山煤煙問題로 代表等上道陳情

郡警當局調停도水泡

【海州】 봉산군마동(鳳山郡馬洞)에잇는 천야(淺野)세멘트회사의 매연(煤煙)문제로 그부락주민 이천여명이 사활문제라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동안대의 봉화를 올고이러나 일대사회문제를 이르키고잇는것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봉산군파사리원경찰당국에서는 원만한해결을 꾀하고저 여러가지로 선후책을강구하는동 드되여

一、防塵設置가 完備될 昭和十四年末까지 每年五千圓式二年間에 萬圓을 會社로부터 慰問金을 支給할것

二、農作物의 被害는 結果를보아 適當히 考慮할것

등 두가지의 타협적 조정안을 제출하고 부락민에게 양해를 구하엿는바 부락민측에서는 이조정안은 부락민의 피해실정을 무시한것이라하야 일축하는 동시에

一、防塵裝置가 完成될때까지 操業을 停止할것

二、萬若그것을 實現치못하는때에는 防塵裝置가 完成時까지 移住할터이니 移住費로 每戶當五百圓式하여四百戶에 二十二萬圓의 移住費를支給할것

三、堤防을 完備하여 水害를防止할것

四、農作物의 被害를補償할것

등네가지조건을 강경히 요구하여 분규는 더욱심각화하고잇섯는데 부락민측대표 곽병국(郭炳國)씨외오명은 지난이일 해주에와서 강도지사(姜道知事)를 회견하고 진정을하려다가 마츰 지사가 출장중이라 하로를묵어 지난삼일 지사를회견하고 피해실정을 일일히 열거하고 전기 네가지조건을 관철케하여 달라고 진정하엿다

陳情團代表談

별항-봉산천야(淺野)세멘트회사매연문제로 그곳부락민대표여섯분이 상도하여 진정하엿다함은 별항보도한바어니와 동진정단대표 곽병국(郭炳國)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도당국에서도 현지를검중한일이잇서 잘알것입니다 농작물(農作物)의 피해는 물론이요 울효수난 세탁난(洗濯難)등의 위생적(衛生的)으로 말이 아닙니다 로 경제적으로 흑은 위생적으로 군당국에서 제출한 타협적조정안에 의한 연오천원을 주민이천명에게다 논으면일인당 이원오십전가량이니 이조건으로서는 도저히 고려할여지가 업습니다

도당국에진정하여 성과를엇지못하는때에는 총독부당국에까지라도가서 우리들 주민의 괴로운실정을 호소하고 주민들의요구를 실현토록할바게업습니다 운운

紙幣僞造行使犯

黃州署에서三名檢擧

【海州】 황주서(黃州署)사법계에서는 방금 황주군영풍면내정리(黃州郡永豐面內井里) 한론교(韓論敎)(二[illegible])와 그동리 사는 김열막(金烈莫)(二[illegible]) 변려일(邊麗一)(二[illegible])을 동서에유치하고 통화위조행사죄(通貨僞造行使罪)혐의로 주렬한취조를 진행하고잇다 사건의내용을드르면 전기한논교는 김열막 변려일등과 공모하고 지난사월이십오일 조선은행권 십원지폐이십오매를 위조하여가지고 지난사월이십이일 봉산군토성면마산지장(鳳山郡土城面馬山市場)에서 행사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여 검거된것이라한다

咸陽產業組合

理事問題解決

【咸陽】 경남 함양산업조합(咸陽產組)에서는 지난사십일 본조합구내에서 의장 노덕영씨 사회하에 제십일회정기총회를 개최하엿섯는바 부의사항에 드러가자 종래 본조합의 업적이 불량한것만치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질문이잇슨뒤에 의사는 착착진행되엿는데 리사선거문제에 잇서 일시 장내는 압운이돌게 되엿스나 부군서찬열(辛燦烈)군수로부터 본조합의장래발전을위하야 의미심장한설명과 도금조연합회(道金融組合聯合會)로부터 래빈으로 참석한 천기주사(川崎主事)의 본조합개생계획에 대하야충분한원조와 노력을 아끼지아켓다는 공언이잇섯고 이어 여원 선거가 잇섯는데 역시 [illegible]

就寢男便絞殺未遂

海州十八歲少婦의犯行

노끈으로목을매여

【海州】 사랑업는 부부여가 비저내려는결국 미연에 "스톱"된 미완성본부살해(未完成本夫殺害)사건 — 해주군 운산면 편리신란동(海州郡雲山面[illegible]里新灘洞)이순애(李順愛)(一[illegible])는 소화십일년에 그동리사는 강상히(姜相熙)(二[illegible])와결혼하여 어래 동서생활을 계속해오더리던데 순애는 남편의사랑에실증을 느낌나머지에 남편이외의 다른매력잇는대상을 구하고저 남편강상히를 죽여버릴게획을세우고지난이십구일 오후열두시쯤되여집에서 곤히자는남편의목을 무스끈으로매여죽이려다가 남편이 놀래깨어 반항하는 바람에목적을 달치못하고 그동리뒷산으로 도망하엿다

그이튼날인 이십칠일오후여덜시쯤 이순애는 뻔뻔스럽게 집으로도라오자 남편강씨의 가족이 격분하여 이순애에게 모두 매를때리는등으로 대소동을 이르켯는데 이급보를받은 해주서에서는 곳활동을개시하여 이순애를 검거인치하고 "살인미수죄"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女眞遺族部落探訪記 ③

咸北特派員 吳俠一記

叩頭는第二天性

合掌脫鞋가最敬禮

陶器製造에는特別한長技

그들의가지가지特性

재가승은 그중성이 보통사람보담 다르고 자세히주의해드르면 「드리오란」는말을 『드리옴지빈』하든시 독특한 방언(方言)이 간혹석겨잇고 그용자(容姿)가 또한심히 비굴한 표정이 만허 예하면 머리를 항상숙으리고 다니는데이것은 옛날에 그들을 노예로 혹사하면서 보통사람을 바로처다보지못하도록 강제한것이 수백년동안 습성(習性)이되야 지금에는 거의 선천적으로 머리와고개가사십오도의 각도로 수그러저잇고 따라서 거룩거리가 흉칭흉칭하야 조심스러운 태도가남아잇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때는 반드시 두손을 마조잡고 소위합장례(合掌禮)를하고 편리나 토호(土豪)를만나면 신발(草鞋)을 벗고공손한뜻을 표한다

「의」 의복은 사내는배르색을 질겨하고 제도 소다른점도 엿스나 대큰차이는 업다

육식물은 처음에는 (肉食)은 절대금하얏고 어물(魚物)과 채소만을 먹엇섯스나 지금에는 육식에금함이 업고 "개장"이 제일 귀중한 음식물로 되여잇다 식기는 목기를 제일만히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화장(火葬)하엿고 화장한뒤에서 남은 해골은 이것을 가루로 찌여가지고 바람부는날 노픈 산에 올라 바람에 날리웟고 그영혼은 언제나 부처(佛)의 겨테 도라오다고 밋고 잇섯다 그러나 근자에는 화장을 하지안코 보통사람과 가치토로 매장한다

「매」 장이 본래에업는것은 아니고 현재 부령군 부거면 독동(富寧郡 富居面 篤洞)에서 발가오데 백여기의 종묘가 잇서 이것을 여진총(女眞冢)이라 부르고잇는데 그중묘의 구조는 라지방에서 볼수잇는 고분(古墳)과 큰차이는 업스나 귀묘가 훨신 크고 그내부의 노출된 부분을 드려다보면 호석에는 반드시 장방형(長方形)의 석

「그」 속에 편안(相)을 안치한 흔적이 보인다 노기다란석곽을만드러 무덧고 으로 거더 아홉자쯤 되는 가지 석자쯤내쪽되는 간격 조롱이잇는데 노피 두자내 전자보담은 다소적어 보이는 다른석곽을가로 노한스니 이안에는 죽은사람의생전의 기물흥은 보물을 너허둔것이나 아니엿든가보인다

종전에도 그중중에서 고귀한 인물이나 공적이 만흔 인물은 이를 매장하야 핑장한 종묘(宗廟)를 만들지나 안헛는가 보인다

×

다 등등은 예팔로 항전(合戰)이라하얏스니 요새 지대(要塞地帶)로서의 면모를가초어 잇는 부거(富居)를두고 여진족과 조선족이 격렬한 공방전(攻防戰)을전개한것이나 아닐까 지명파아울너 다수의 종묘이여기에 잇다는것도 조흥의사료(史料)로 보인다

×

매년오월단오에 나누어산천제(山川祭)를 일월제(日月祭)를 에거행하는외에 사월초팔일의 관불(灌佛日)날이 제일 가는명절이 되엿고 명절날이면

「전」 부락인의 한것에모여서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것이 남에게는 서명을 갓지못하게 하얏스므로 일정한 성이 업섯스나 지금은 버젓한 김(金), 신(申), 고(高), 이(李)등의유래에 대한 전설은 구구하나 요사이의 대동보소(大同譜所)가 일종의 매성(賣姓)기관의 역할을 하는수도 잇섯스니 그가튼점으로서 성을 어든자도 잇겟고 중간에 재가승여자를탐내여 재가승에 입적한자들이 이제는 자기성을 뚝바로쓰고 잇는관계도 잇는모양으로 그들은 족보(族譜)와 본관(本貫)을 자랑삼어 말한다

「그」 들사이에는 일정한 오락(娛樂)이나 민요(民謠)도 업고 신화(神話)나 전설(傳說)도업다 흥은 잇다지 안는 습성이므로 아러채기 드리도 결코 외부에 말치 안는 오직이야기를 시켜 어렵다 『도깨비』가 잇다는이야기 흥은 이세상에 귀신(鬼神)이 잇는가 하는 반문이 나올뿐이엿다 그러나 신이 잇다고 그들은 밋고 부처(佛)의에도 신의 존재를 밋고잇스나 미신(迷信)만은 절대업다

(寫眞은富寧郡富居篤洞의女眞冢)

鳥致院에서 自轉車大會

【鳥致院】 금월칠일양일간충남조치원(忠南鳥致院)에서는 장차동자전거점(振興自轉車店) 동화백화점(東華百貨店) 광재상회(廣載商會) 명화당대약방(明化堂大藥房)연합주최와 본보조치원지국후원으로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일등입착에우승기를비롯하야 현금팔십원과기타 부상품이풍부하다고한다

李範洪氏壯擧 鄕校自擔改修

【全義】 충남 전의에잇는 공자묘(孔子廟)는 연래로 경내(境內)에 담벽이업서서 유림회에서도 다대 숙제이던바 향교직원 리범홍(李範洪)(五[illegible])씨가 현금 팔백여원을 자담하야 기공한바 지난 이십구일에 준공되엿다는데 지방유지인사의 칭송이 자자하다한다

清津行勞動者 百廿名出發

【大田】 함북청진부도시계획공사(咸北淸津府都市計畫)에인부부족으로충청남도(忠南道)에서는 오는사일 노동자백이십명을 도사회과원의 인솔하에출발하게되엿다

安義產組定總

【安義】 경남 안의산업조합(安義產組)에서는 지난 이십구일 오전십시부터 제이기 정기총회를 안의심상소학교에서 개최하엿는바 부의사항에 드러가 만장일치로 무사통과 하얏스며 리사(理事) 감사(監事) 평의원(評議員)의 개선에잇서 당선자씨명은 다음과갓다

理事 申炯圭

監事 尹鍾五、河宗[illegible]、李[illegible]彦

評議員 河[illegible]鎭、姜大龍、朴以承、李容雨、李炳文、嚴主燮、李仁台、韓琮煥、[illegible]俊植

여러분의 사랑하는 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엿습니까 雨期는 일로부터 옵니다
雨衣都散賣 朝鮮防水布所 京城府 [illegible]

音樂 [illegible]

府內千治

朝報案內

賣家 賣地

從業員募集

社員招聘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五月六日封切 大船問題の哀傷詩篇 光の門 主演 桑野通子 高杉早苗 高峰三枝子 夏川大二郎 監督 佐々木康 若き乙女の胸をヒシと打つ
明治座 六日より十日まで 漢江 男は神に非ず

新春大衆演藝大會 五月六日 晝夜(一時 七時半)
오케-專屬 藝術家 C·M·C 제스밴드 總動員
高福壽、李蘭影 南仁樹、金貞九 張世貞、李銀波 宋達協、金貞淑 金海松、趙英淑 [illegible]
五月六日 (晝一時·夜七時半) 均一 ¥50 府民館
오케-레코-드

빅타- 金福姬孃의 最近出色盤 울고싶은 마음 [illegible] 金福姬

檢眼無料(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檢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中國名名 性器强 大靈藥 日滿商事藥品部

商標 千都 고추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電話園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創立明治三十二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山口樂器店鍾路支店 ヴァイオリン五、五〇ヨリ各種 ギター八、〇〇ヨリ各種 マンドリン七、〇〇ヨリ各種 ウクレレ二、五〇ヨリ各種 手風琴 九、〇〇ヨリ各種 ハーモニカ 一、二〇ヨリ各種 京城府鍾路二丁目

長期戰과經濟力 ⑦

消費節約의對象

三、銅及鐵、木材

(14)住宅別莊其他의 建築은 할수잇는限 이를中止又는延期할것(主로 木材의 關係 但鐵骨鐵筋構造의 門塀等에 對하야는鐵의 關係)

(15)百貨店、料理店、飮食店、劇場、映畫館、演藝場、觀物場、遊技場、貸座敷、藝妓置屋、俱樂部、事務所、下宿屋、旅館、宿泊所、아파-트의 營業者修繕、新築을 中止할것

(16)土木事業을可及的保留할것(主로鐵及木材의關係)

(17)建物의 집웅、樋、塀에銅을 使用하는 것은 可及的 節約할것、不得已한 境遇에 잇서서도 銅을 中止하고 도단을使用할것

(18)銅線의 架設은 이를中止할것

(19)반드시必要한境遇에 限하야 鉛管類의 製造及其國內에서의 使用을 保留할것

(20)石油罐、罐詰의 空罐、古釘、古바켓스等의 廢品을 利用할수잇게 이를버리지말고팔것

四、紙

(21)百貨店其他에서의 包裝紙의使用을 될수잇는限 이를節約할것 不得已한境遇에는 品質의 低下한것을 使用할것

(22)小賣店에서는 包裝紙의使用을 廢止할것

(23)圖書의包裝紙(파라핀包紙)를 中止할것

(24)果物、菓子、圖書 其他의 箱、包紙等을 中止할것

(25)學校等에서 兒童等의 使用하는 紙類는 可及的節約할것

(26)官廳、銀行、會社等의 事務用紙는 節約할것

(27)封筒의使用을 極力節約할것

(28)廣告用「지라시」를 可及的節約할것

(29)印刷用紙의規格을 統一할것

(30)新聞雜誌等의紙數를 어떤程度로減少할것

必要외에는 薄紙한印刷物等의作製發行은可及的保留할것

(31)古雜誌、古新聞、反古紙及紙屑는再製原料에供키爲하야버리지말고팔것

紙屑에는 다른汚物等과 區別하여두고 어느處理에便利하도록할것

五、石油

(32)自動車까솔린에 酒精을混用할것

(33)遊山等에 自動車利用을하지말것

(34)石油스토-부의使用을可及的節約할것

六、其他

(35)外國으로부터輸入하는果物(鳳梨、果汁等의罐詰)等嗜好品의購入을中止할것

(36)舶來洋酒의使用을 廢止하고 國産洋酒의使用을節約할것

(37)鐵、알미니움、니켈其他의金屬製로만든 食器家具等의製造를中止할것

(38)金屬製、고무製玩具의 製造를可及的廢止할것

(39)皮革製品의使用及新調를可及的節約할것

(40)고무靴의使用을可及的廢止할것

(41)食料品等의包裝에 紙를使用하는것을廢止할것

(42)羊毛의化粧品、齒磨、洗粉、菓子等의製造를 中止할것 此等容器의 廢品은 再製케하야버리지말고팔것

(43)靴、鞄、兒童의란도셀、皮椅子等의新調는 可及的保留할것

(44)自動車等의購入을 當分間에 可及的節約할것

(45)새로히瓦斯、水道의新規敷設、又는延長을可及的保留할것

(46)鋼、亞鉛等原料로하는 白粉의製造又는使用은 可及的節約할것(化粧品節約을意味함이아님)

(47)銀行、會社의 事務用紙及 家庭燃料로서 使用하는石炭은 極力使用을 節約할것

第二、金의使用節約

金의使用節約을 爲하야 國民에게 如何한것을 求할것인가

(1)金側時計의 製造販賣又는購入을保留할것

(2)金環、金메다루等의製造 又는 此等을 保留할것

(3)가후스釦、넥타이핀、指環、腕輪、眼鏡、鎖、頸飾、金屛風其他一般裝飾品에對한 金의使用을 節約하고 又는此等物品의購入을 保留할것

(4)金文字、金看板의 製作을 保留할것

消費節約의重大性

(5)技術上 支障이업는限 可及的 金의使用을 節約하고 代用品을 使用할것

(6)讀物에 金箔金粉等을 使用하는것을 節約할것

(7)必要品의 購入力增大에資키爲하야 個人의 所有하는 各種金製品을 可及的 政府에 賣却할것

參考 本年三月 輸出奢侈品及毛織物에一定의 스테이플화이버-混用을 命하엿고 本年一月부터 實施되고잇다 一月 金의使用制限에關한 府令이 發布되엿다

우리國民은 相當한 節約을 하여왓다 그러나 아직 餘地는 잇는것이다。萬若에 國民二千萬이 一人一人이 節約한다고하면 每日一枚의 紙를 節約하면 二千萬枚의 紙의 節約이 될것이다 우리들이 一人一日에 一錢을 節約한다면 八百萬圓의 金額이 생기는것이다 ……

……

今日財界日曜

◆米(單位錢)(今日休止 比前日休止)

仁川期米先限 三五〇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五二 一低

京城三等米一石 三五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 —

白米(下) 一等

고무 F A Q

◆株(單位十錢)(今日休止 比前日休止)

新 三一〇 一低

東新 一八一 一高

京 一二八 一低

大阪三品(先期單位錢)

棉 一七六 不變

絲 一〇〇

人絹 一五〇

砂糖

金增收限度到達

金의强制買上論

價格引上政策다음에올것!

金死藏도自然解消?

이번 政府의 金買上價格引上이 從來의 引上과 相違한點은 金增收가 그限度에 達하얏다는一事이다 當局은 이에關하야 말하되

『今回引上에 依하야 國際水準까지 引上된結果 이以上으로價格을 引上할때는 政府의 損失이될으로 市價의 昻騰或은 現送費가 顯著히 低下되지안는限 引上은 不可能하다』라는 言明에 徵하야도 明白하다

買上價格引上에 依한 政府의 金增收가 限度에 達한 今日 一層 金의 增收를 必要로함에는 어떠한 手段을 講究케될것인가? 이라할때에 對하야 생각해보는 것을 現在에 잇서서 너무急한일인듯도하나 다음의 課題는 金의 强制的買上을 考慮할 時期가 到來할것갓다

强制的 金買上論은 이미 今回와 가티 價格引上이 限度에 達하기 前부터도 一部에서 提唱되는터이다 그러나 今回의 引上에依하야 一般에게 周知되면 死藏도 自然解消케되리라고보이나 引上政策의 다음에올것은 强制的買上의 一途일것이다

今回의 引上에依하야 買上價格이 限度에 達한것이 一般에게 周知되면 死藏도 自然解消케되리라고보이나 ……

向이잇슴에 反하야 朝鮮信託의 그것은 微微하나 漸增하고잇다 하는結果로된다

證券業取締法

取引員適用除外要望

去議會를 通過한 有價證券業取締法은 近近施行規則의 公布를 기다려 朝鮮에도 施行될터인데 朝取取引員組合에서는 同法令의 實施에 當해서는 朝取取引員은 除外해달라는 陳情을 行하고잇다 取引所取引員의 同法適用은 議會에서도 問題가되엇스나 政府의 意向으로는 全部 同法을 適用하기로되어잇스므로 아마 朝鮮에서도 內地同樣으로 取引所 取引員이라도 이것의 適用을除外하는일은 업을것이라고보고잇다

超然한朝鮮信託 貯蓄獎勵無支障

金錢信託의 伸力鈍化에 苦心하는 內地信託會社는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인 貯蓄獎勵에 協力할 必要上金錢信託期間의 短縮(現行二年以上)을 要望하고 信託預金吸收에 務力하려고하는希望을가지고잇는 一方朝鮮信託에서는 同樣貯蓄獎勵에 積極的으로 協力할立場에잇는바 朝鮮에잇서서는 信託令에 依하야金錢信託의 期間은 一年以上으로되여잇서 信託預金의 吸收는 比較的容易하기때문에 此種의希望은 別로업는모양이다 그리고內地信託會社의 金錢信託이 絕對數에 잇서서는 도리혀減少하고잇는傾

支那兩會社設立 委員會一回總會

【東京電話】北支那開發 中支那振興兩會社設立委員會는 來十二日首相官邸에서 第一回總會를開하고 南北兩特別委員長以下를決定 具體的設立에 着手키로되엇다 右兩會社의 特殊重大使命에

農畜林併進主義

먼저技術員의養成부터着手

朝鮮의農業政策轉向

産米增殖計畫을 中心으로進行하여온 朝鮮의 農業政策은昭和九年의 同計畫中止에 伴하야專혀 産米改良計畫으로 集中되여잇든바 今次의時局關係가 有力한 導火線이되여 畜産及林業으로 轉換하야 所謂農畜林併進主義로 進行하게되엿다 卽今年度부터 木材資源의 確保를目標하고 國有林、民有林의 大造林計畫을 樹立하는同時에 畜産方面에서는 牛、馬及緬羊의 增殖을 圖하기로決定하고 드디어 實行에 드리갓는데 이에伴하야 關係技術員의 不足을告함에 이르럿스므로 總督府에서는 먼저技術員의 養成에 注力키로되어今年度에 새로히 咸興、春川의兩農業學校에 獸醫畜産科를 設置하고 旣設三校와合하야 五農業學校에서 畜産關係의 中等技術員을 養成하게되엿다 또本年度所要數는 約百二十名으로 어에對하야서는 겨우 新採用의 豫測이선모양이다

上海南京에 鮮銀이進出

鮮銀에서는 北支進出과 並行하야 南中支에對하야서도 具體的 調査를進行하고잇는데 大體上海의北部(市政府附近)과 南京郊外의 鎭江에 各其店舖를新設하리라한다

東拓副總裁 參與理事決定

【東京電話同盟】東拓法改正에伴하야 復活되게된 東拓副總裁及新設케된 參與理事三氏의 人選에關하야서는 先般來 大谷拓相總裁下에攻究中이든바 副總裁에 元東拓理事 池邊龍一氏를任命參與理事에는 住友銀行會長八代則彦氏第一銀行頭取 明石照男氏及 石炭鑛業聯合會會長 松本健次郎氏를 七日의 臨時株主總會에 附議決定하기로 四日에正式決定되엿다한다

魚油共同購入案

産地側에不利益

入札販賣統制 有名無實化?

朝鮮의 魚油共販統制에關聯하야 內地硬化油同業會를 中心으로 魚油共同購入會社新設案이進行되고잇는데右魚油購入의具體化의實際問題로서 現在의魚油販賣統制機構의 全面的修正을意味하게되여그修正의 方向은産地業者의利害를 背馳하느니만치 果然關係方面으로부터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卽 共同購入案은 硬化油製造業者의側으로말하면 現在競爭入札에 依하야恒常高價入札을 競爭하고잇는것을合理化하는 自衛的手段이라고 할수잇스나 가령 이것이 實行되는境遇는 全面的으로 現在의入札販賣統制는 有名無實化하게되는것이다

一、먼저 入札者中 硬化油業者十一社는 談合한다

一、輸入業者의三井、三菱은 實際問題로서 內地向을 取扱할수업느니만치 入札이不能하다

一、現在行하고잇는것과가티 産地團結에依한 魚油의市場操作은 買方도 團結할것이므로困難하다

一、取引價는 相對賣買로되여 買方에게 有利한 餘地가만케된다 勿論合理的인 配給統制의 理想으로말하면 産地及買方도 統制되는것을 理想으로 할것이나 現實의 問題로서는 産地團結에依하야 有利하게 局面을 指導하고잇는 朝鮮이니만치 이에 依하야 밧는 影響은 적지안흘것갓다고한다

硬化業者側理由 自衛手段이라고

魚油共同購入의計畫은 要컨대 硬化油業者의自衛手段으로서 朝鮮의 産地統制에 對抗의方法으로서具體化한것인바 硬化油同業會側의말에依하면 不得已한手段이라고한다

卽朝鮮에서는 現在總督府油肥聯、各道聯合會、協同油脂의四者가緊密한提携를保持하고 魚油價格에一定한 基準을두고 低價이면 絕對로팔지안는 方針을繼續하야 買側은 基準以上의 價格을 支拂치안호면아니되는 立場에잇다 硬化油各社에서는 硬化油의價格協定을 하고잇는以上當然買入도 共同으로 行할것이라는것이 其理由인것갓다

그리고 昨今二百六十萬罐을가지고 갑시떠러저 損百萬圓을맛고잇는 日本油脂의 失敗가이機運을 促進한것갓다한다

一月以降朝鮮內新設會社續出

三二六社·公稱資本一億

總督府商工課調査=四月中 全朝鮮의 會社異動狀況을보면 新設은 六十一社로 其公稱資本金은 八百九萬四千圓이요 拂込資本金은 三百五十三萬四千圓이다 이에 依하야 一月以降의 新設會社는 二百二十六社 公稱資本金一億二百七十萬三千圓 拂込資本金二千八百四十八萬二千圓이다 다음에 解散한會社는 四十一社로 公稱資本金은百八十萬九千圓이요 拂込資本金은 一百萬九千圓인데 이外에會社의 增資額은 四千九萬五千圓으로 拂込徵收는 五百五十四萬一千圓이다 이에依하야 보면 最近朝鮮의 各種事業이時局關係로 漸次大規模化되여 新設會社가 急激하고잇는것이窺察되는데 一面從來에 個人經營이엿든것이 增稅關係其他로 漸次會社組織으로 變更하는것이 顯著한데 四月中에잇서서의 新設會社를 業種別로보이면 如左하다 (單位圓)

	社數	公稱資本金
農林	一	一〇〇,〇〇〇
工商業	三八	三,八六一,〇〇〇
金融業	一	[illegible]
運輸業	二	[illegible]
水産業	二	三〇〇,〇〇〇
其他	三	[illegible]
合計	六一	[illegible]
累計	二二六	一〇二,七〇三,〇〇〇

經濟界消息

○伊川無煙炭會社發起人會=日本高周波系에서 設立準備中인 伊川無煙炭會社(假稱)는 內田銀五郎氏所有鑛區의 買收受渡를終了하고 二、三日中에 發起人會를開하야 定款其他를決定하고 十日頃 總督府에 資金調整法에依한 認可申請을할터인데 同鑛區는 許可鑛區만으로도 埋藏量이 四百萬噸으로라고稱하며 炭質도 比較的조하 製鐵用에適當하다고

鑑하야近衛首相官邸에서 設立委員長鄕誠之助男과 會見하고 鄕男에게 對하야 北支那開發會社總裁就任을 懇請하는同時에 中支那振興會社總裁의 人選을依賴하얏다

○無盡協會定時總會=朝鮮無盡協會에서는 來九、十兩日間第十五回定時總會를 京城商工會議所에서開催 左記事項을附議하리라고

第一日(九日)

一、開會辭 二、財務局長訓示 三、來賓祝辭 四、答辭 五、昭和十二年度事務報告와決算報告承認件 六、昭和十三年度豫算案承認件 七、會員提出議案審議

第二日(十日)

一、國策으로서의 銃後國民貯蓄獎勵對策에關한研究 二、懇談會 三、閉會辭

○農林省森林局長會議=農林省에서는 來五月九日부터 四日間 農林局長會議를 開催하고 國有林經營及 林政上取해야할方策、對滿林業移民、國有林事業勞働者에對한 施設等에對하야 協議하게되엿는데 總督府에서도 山下林政課長 柴下技師가 出席하리라고

○電氣協會總會=朝鮮電氣協會에서는 來五月六日午後二時부터 遞信事業會館에서 第二十五回定時總會를 開催할터인데 附議事項은

一、昭和十二年度會務報告件

二、同會計報告件

三、昭和十三年度收支豫算件

總會에잇서서 講演會가잇다고

▲時局懷入化國民運動 井坂圭一郞氏

▲生產力擴充과金融 橫瀨守雄氏

協會에서는 同日午前十時부터 府民館에서 物故功勞者와 殉職者慰靈祭를 擧行하리라고

○日本海航路同盟年次總會=日本海航路同盟에서는 來十、十一兩日 滋賀縣大津에서 年次總會를 開催하게되엿는데 朝鮮郵船으로부터는 鏡渚北鮮係主任、山口大阪支店長이 列席하고協議事項은 事務上協議뿐이라고

株式

一高一低 採合

前場鐘狀 昨後場의突込試返으로 波瀾을그린後 今朝에는 外電高로 氣配少堅이엇스나 民賣物은 依然優勢로 寄付는 東新百四十四圓五、鐘紡二百四十八圓七로 鈍化한다음 利喰以外에는 積極買物도업서 頭重狀으로하야 新四圓丁、鐘紡八圓

依然買氣稀薄

昨日의 突込急返으로 或은最後突込의 大底入이아닌가 하는觀測도 不無하엿는데 昨日의波瀾도 東新에限하고 他株에는미치지못하야 一抹의 疑念을남긴것는데 더구나人氣는 極度로 弱하기때문에 探算株中의 優良한株에對한 物色買氣以外는 依然買氣稀薄하고 그中에도 東新은 比較的底固狀이나 鐘紡은 緬業統制의現狀과 三倍增資實現可能性이 薄弱한데서 買妙味는적다 고보아 底高는곳까지 賣進하려는 傾向에 一段下止되지만 市場은 鄕어면서도 伸力은 도모지 볼만한것이업고 國家總動員發動等을念慮하야 株界의前途를 悲觀視하려는 先入觀이 市場을支配하야 早速한回復을보이지못하는 光景이다 어떠한 有力한動機로 買氣가 回復되기까지는 買에도 큰妙味가 업서보이나 그동안惡材料로 賣叩하야 玉整理는進捗되고 假位도 賣餘地가엄는程度이니 賣追도도한 神奇한것이 업슬것이다

後場採合 後場은 東新一般 新五十二錢、鐘新一高一低로 凪狀裡에 寄付後 一高一低로小幅往來하야 擡合狀이엇다

波瀾保合時期?

統制强化와 遞信의反動이 今回低落의 主因이오 對蘇緊迫說、政局念慮이도한 加擔한것이라면 統制强化도 不得已한現象이며 豫想된실재이기 아직 昻進狀을 보이지안핫스나 亦是今後에도 이는 不可避일것으로보아야하겟스며 政局은 爲先 不安이解消된 現狀이오 對蘇緊迫說도 結局 一時的國境衝突을 誇大視한 結果이니만큼 突然的恐怖에 사로잡힌까닭도 업든터이니 設使民賣人氣로 市勢는 늘軟調를 보이드란도 큰下値가더 잇스리라고는 볼수업스리란 商談도 不無하야 亦是 波瀾속의 商勢임에는 틀림업스나 이런中에 展開될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國債僞品

【東京電話同盟】依然 新規材料가업시 賣買는 閑散한 데 小口이나 實需方面의 買物이엇서 甲號五分千錢 第二回

市場六感

㊑……昨日의波瀾後今朝의上放이當然視되든것이 다시鈍化反彈하매 場面은 다시民賣人氣가支配▲長期應戰과 統制强化라觀念은 市場人의頭腦에纏러어운 印象뿐인양?▲이겨어운 印象뿐인양?▲이러한鐘紡氣流속에는 따듯한太陽光線을쪼사리보기가 어려운터나▲다시暴風雨를모라칠氣配가 어된도아닌듯?▲賣方이건 買方이건 이제는 한동안濃霧속에서 결울차즈며 米榖前도半年이면 떨어나 極地의발도半年이면 꽃

㊎……今朝의 小雨는 旱場人氣를 얼마큼 緩和케하엿다 今後天候가 더욱 注目處▲麥作은 旣히 遲作으로 一般이 周知하는바어니와 今後植付야 말로 米價大勢에 莫大한關係를가지고잇다▲그래서 그際를 압헤서부터 今後天候가 果如何?▲그리고 農家의 賣惜方針으로 一層 鞏固하야 正租가더욱 强硬▲그래서 精米側은거의 休業狀態이라나 此忠바아서는 方針을 捨할수업는지물두고보자

期米 堅强이나 伸惱

前場昻進 今朝는 小雨로 三十二圓八十七錢으로 人氣모 阪地三十四圓七十三錢인 一丁低를 擧하고 當限은 一圓八十七錢인 二丁低로 中은三十二圓二十錢인 四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三十一錢인 五丁低로 強含으로 阪地漸高步調로 七十九錢을 示함에 不拘코 三千五六錢의 伸惱狀을 보이드니 阪地九節八十八錢으로 八十五錢에 止揚하얏고 三十二圓四十五錢에 昻進止揚하다

後場反弛 後場은 三十二圓四十五錢인 前止同價로始場한 後 三三節四十四錢으로 五節三十五錢에 反弛되엇다

五分五錢高가되고 米價六分半은 仕手關係로 二十錢反弛되엇다 ▲甲號四分五厘 一〇二五▲二十二年物六分五厘 一〇二五 ▲佛貨四分五厘 一〇五 ▲米五分半 一〇三〇

過賣의反動?

新甲七月限은 三十二圓十二錢에 越當한後 依然三十錢强으로 反高하엿스며 當中도二十餘丁의 反高를 示하엿다 此의原因이 何에 在한가를 窺하면 在來는 潤澤하고도 持米側의 絕對賣惜으로 正租의 市勢가 依然高價를 維持하야 精米側의 休業狀態를 보이는 等의 唯一한 弱材와 又는 春來 旱天으로 麥作이 不良하고 따라서 落種水의 不足으로 農村의 旱騷가 擴頭하는 第二强材가 잇스며 一方으로는 去三月下旬부터 去四月末까지 續落한 그反動으로 押目買氣가 旺盛하얏을 뿐이라하나 그러나 低落의 反動이라하면 그程度로 可히알수잇고 又는 雨不足을 硬材의 條件으로하면 此는 時期尙早의 嫌이업지아니하다 그러면 第一軟派의 讓歩할바는 內地의 在米가 그다지 樂觀狀態가 아니만큼 結局朝鮮米를 吸收하게될것임으로 朝鮮에서의 持米側은 絕對低價賣에 應하지아니할것으로 持米側의今後態度 何如할지 此가注目할버어이다

急騰도亦難?

七月限이 誕生한後 二、三丁의 好勢를 보이엇스나 高價에 머거든 陰鬱한날만이 繼續될까 될이잇스랴? ▲차차陰極의 行動이 展開될時期도된듯?…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買方	賣方	買方	賣方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云云果如何?

아직買方針만을 固執할수업다고 도 雨量 繼續할지도 亦未知이므로 一割이 업지안커니와 今後降雨는 旱餘의人氣를 幾分緩和케 昻騰하지안흘것갓다 今朝의 小殊한材料가 잇기外에는 容易히 較的 低位에잇다고하나 今後特지안흘것갓고 從하야 米價도比價게 絕頂에到達하얏슴 更騰하다고 불수도업스며 又는모드는 物모르는만큼 確實한 實價騰가잇다고 現出할지도 모르는 時期이므로 準備하고 또飯賣米의 實需物이 현대 米價의大勢는 아직在來가 는 아직觀望하는듯 光狀이다 그 는 實物이不動으로 大手筋은

正米 京仁外는 漸騰

京城不變 滿鮮은 朝來中間端境의 大勢高 京城 上放하엿스나 內地問罷不調와 賣行不振으로 市中은 買氣不振하야 晏振으로 産地의 動向轉觀으로 市價前價同樣의 不變이엇다 ㊀ 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保合 【仁川】最近에 至하야 産地의 態度는 再次强化하야 賣惜態度를 堅持하고 內地賣行도 活氣가업서 貿易精米側도 積極買는 傍觀하야 唱價도結局保合으로 賣買薄이다 ㊀銀坊主 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五〇 多摩錦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四一二、九〇

釜山上放 釜山繼續하는內地浪漫은買氣頗然擡頭하야 場面은 자못活潑하게되고 市勢는品薄에 因한持米側의 强腰頑强과 相俟하야 一擧十五錢飛上되엇다 ㊀穀良三等三二、三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三三、二五

大邱底堅 依然産地賣惜風潮으로 賣物이 업기때문에 取

木浦暴騰 旣賣季에 當面하야 湖南地方의 不足과 東北來에서 在米는 一部의 天下가 到하는 내고等보지안코 緩和호 消水와가 되 入荷不足으로 叫唱 매 … 一、三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三二、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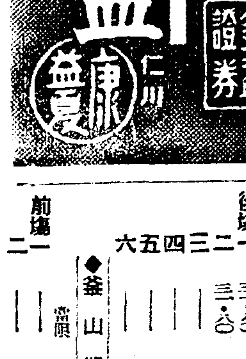
群山少堅 內地는 順雨尙 不足에 入荷價低이어서 商談은不活潑하나 朝鮮內降雨不足으로 各地에서 高唱되어 賣物도 全然 不足하야 …… ㊀銀坊主 三等 三一、三〇 一等白米 一二、八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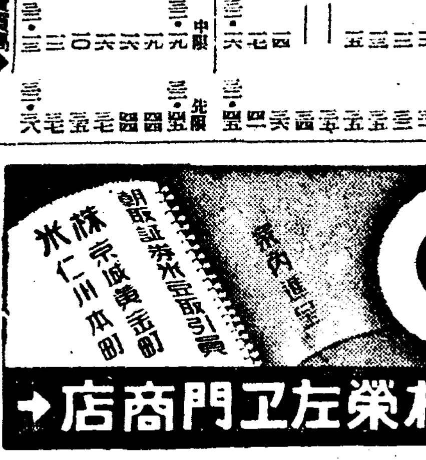
株式

朝取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實定代引日步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期米賣買高





期米

◆朝取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京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東城物價(四日)

▲白米(斗、單位錢) ▲麥粉 ▲肥料 ▲紙物 ▲石炭 ▲砂糖(百斤單位錢) ▲海産物 ▲染料 ▲木材 ▲牛皮乾皮(百斤單位錢)

[illegible]

海外經濟 三日

[illegible]		

◆銀行券 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銀價 ◆金賣入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大連特産市勢 滿洲商況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生絲 ◆橫濱生絲

◆人絹 ◆各地人絹

◆棉花 ◆大阪棉花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